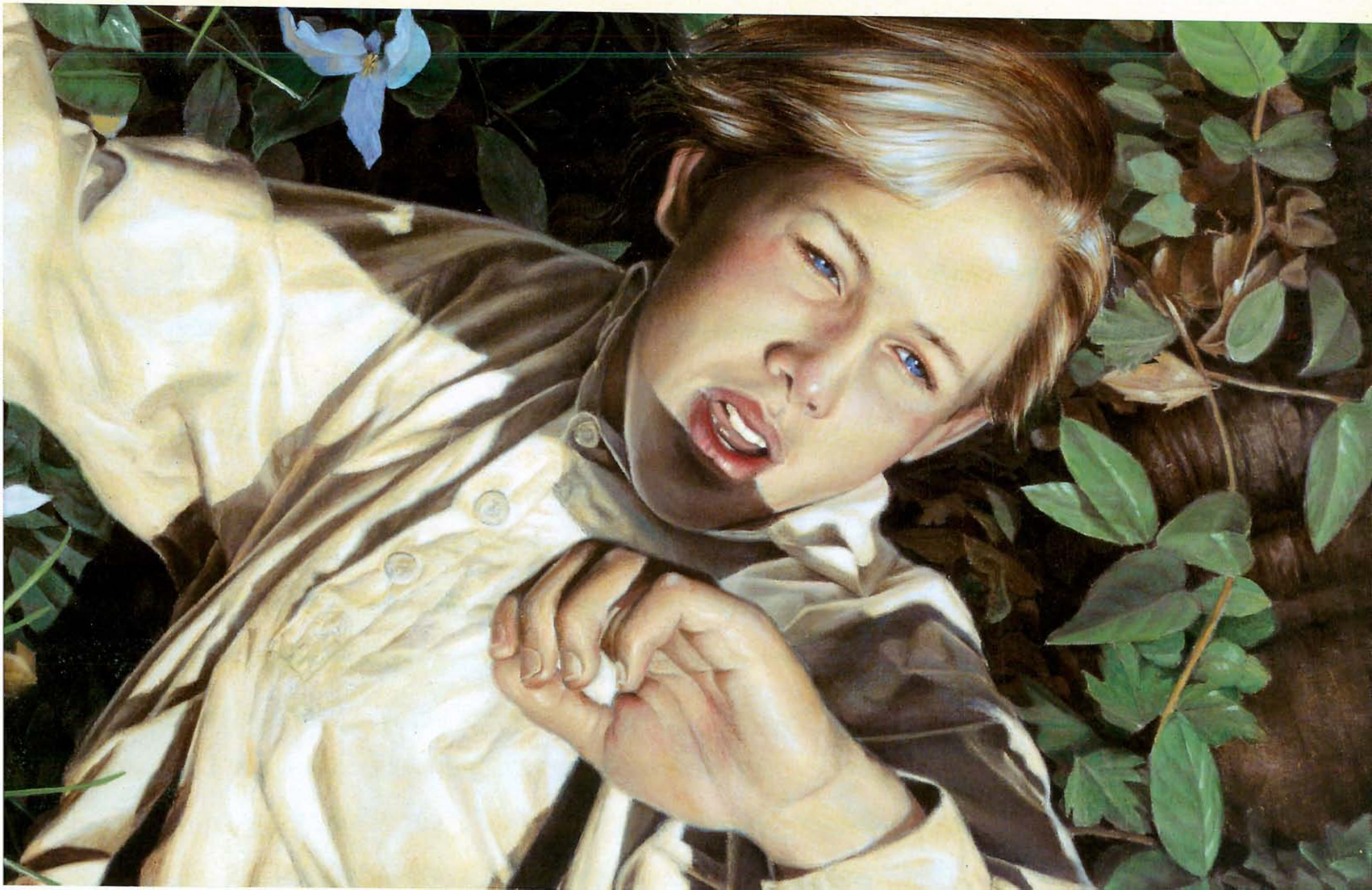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12 1997
별책 부록 : 어린이란



12 1997

성우

표지

앞표지 사진 촬영: 리즈 레몬, *첫번째 시현*
뒷표지 사진 촬영: 다이몬드, *예수의 탄생*;
로엘 브루스 베넷, *첫번째 시현*

어린이란 표지

그림: 웰 파슨, *갈릴리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일반

2 대관장단 메시지: 감사의 계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10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

19 나의 성탄절 외투 체릴 보일

20 성지의 평화 디 켈리 옥든과 데이비드 비 갤브레이스

26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의 주요 변경 사항 돈 엘 셜

33 요셉 형제에게 바치는 찬사

40 빛이요 생명이라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44 가슴을 에이는 깊은 슬픔 속에서조차도
스베인뷰르그 구드문드스도티르

46 나는 개척자 캐더린 라모니노 도르프와 돈 오 도르프

26쪽 참조

청소년란

8 새로운 성탄절 전통 더글러스 프레즌

16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대린 리스고

24 매주 일요일이 성탄절 로이스 티 바톨러메이우

정기 특별 기사

1 애독자 편지

25 방문 교육 메시지: "무엇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지는지 항상 기억하라"

어린이란 (별책 부록)

2 "큰 기쁨의 좋은 소식"

4 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마빈 케이 가드너와 반자 와이 왓킨스

6 어린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별 레베카 토드

8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예언자들이 증거함
캐럴 애쉬튼

10 탐험: 데저렛 셰리 존슨

12 심심풀이: 크리스마스 퀴즈 디 에이 스톤

13 크리스마스 공예품: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그림
엠 에이치 마틴

14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통 벨로이 리차즈

어린이란, 2쪽 참조

33쪽 참조

40쪽 참조

어린이란, 4쪽 참조

성도의 벗 1997년 12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발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제이 이 젠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트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올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탭:
관리 편집인 :미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올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앤 마틴데일
제작 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 스탭: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시끼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디자이너 :새리 쿡
제작 부장 :제이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데니즈 커비, 매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탭: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락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턴슨
부장 :조이스 핸슨

통 권: 제381호, 제34권, 제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7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December, 1997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7992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6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21,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27,000원, 3지역(중동 등) 35,400원, 4지역(호주, 남미 등)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3223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어느 크리스마스 기도

작년의 크리스마스 절기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3일 밤, 기도할 때에는 마음속에 뭔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에 관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보니 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영을 그토록 강하게 느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받는 것이 아닌 주는 절기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아무 것도 준 것이 없었지만 겸손한 기도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기쁨에 넘쳤던 그날 밤에 제가 기도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제가 간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감사를 드립니다. *리아호나*는 이 잡지를 구독하는 각 가정에 영을 가져다 줍니다.

파올라 카로리나 마이라
아르헨티나 맨도사 스테이크
산 미구엘 와드

크리스마스를 즐김

1996년 12월호에 실린 "아빠의 노래"에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글은 가족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눈을 감고 이 세상에 오기 전의 하늘에서의 마지막 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소녀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팔에 안고 흔들고 계셨으며 천사들은 그 이야기 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밤 그 이야기를 읽었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엘리자벳 파디야
푸에르토리코 마야구에스

범세계적인 가족

우리는 지금 몇 년째 러시아어로 된 *리아호나*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잡지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수많은 범세계적인 가족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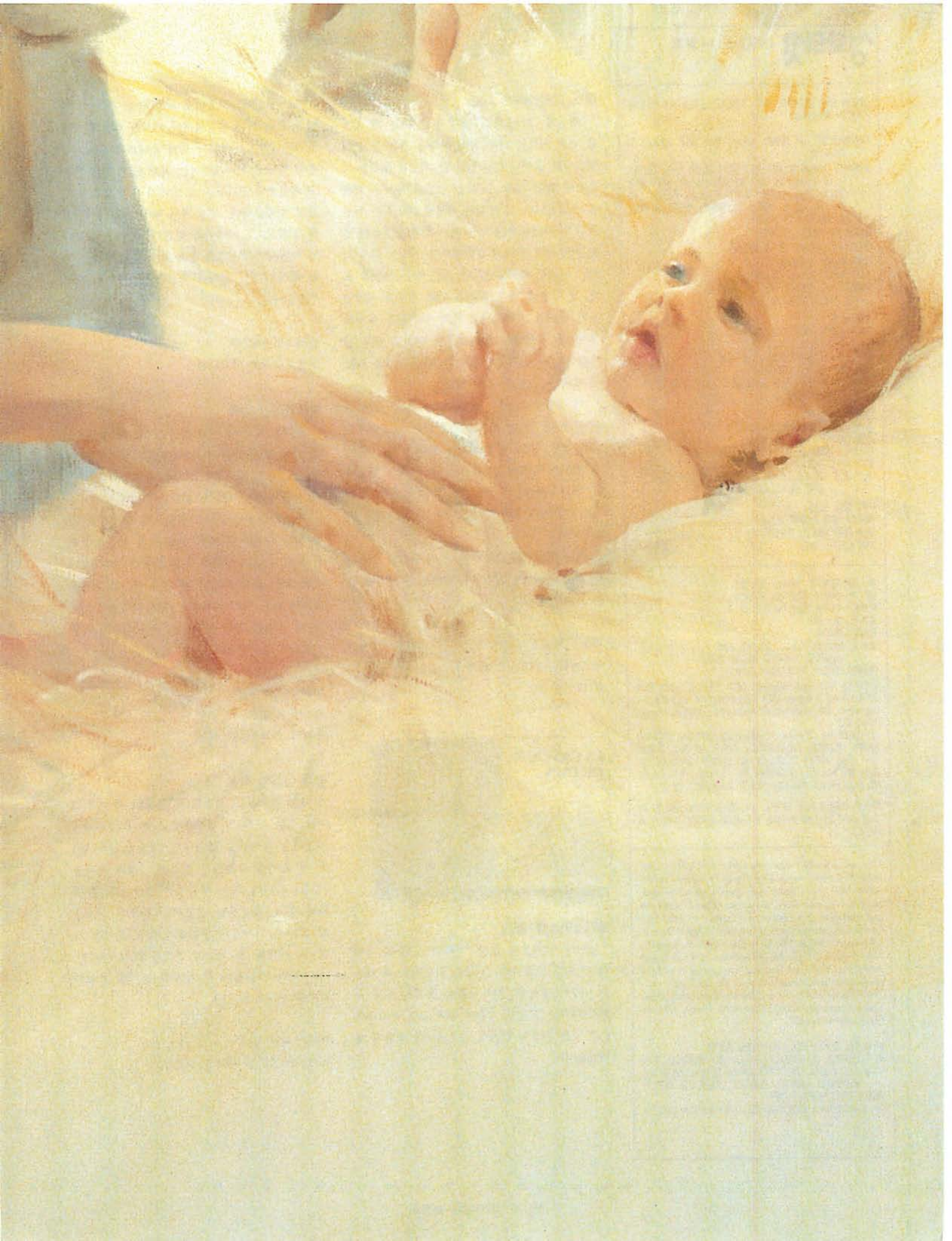
저는 6년 전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제 삶이 힘들 때마다 저는 이 잡지의 한 기사에서 읽은 어떤 인생의 상황을 문득 떠올립니다. 이 때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 것에 위안과 기쁨을 느끼며 다른 교회 회원들에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이 잡지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가 발전하도록 도와줍니다.

니콜라이 아파린
러시아 비보르그 지방부
유지니 포시오로크 지부

영적 성장의 축복

저는 아이보리 코스트(옛 불령의 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원주민으로 저의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레뜨왈*(불어 판)은 매 호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대관장단 메시지와 먼 나라의 형제, 자매들의 감동적인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사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자신의 간증을 키워 줍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훌륭한 잡지를 충실히 읽기를 권고드립니다.

베코인 샘슨 장로
아이보리 코스트 애비잔 선교부



감사의 계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지금은 베푸는 계절이며 감사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출생을 기억하는데, 그는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바로 이 12월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버몬트에서 시작되어 일리노이에서 끝났습니다. 그 수수한 시작과 비극적인 결말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기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과 부활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준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위대한 시현이 열린 그 짧은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학식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학술적인 토론회에서 수세기에 걸쳐 논해왔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실재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로서 기이한 책인 몰몬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대에 신권을 지녔던 사람들로부터 신권과 그 권세와 은사와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열쇠를 받았으며, 우리에게 교회 조직과 그것의 위대하고 신성한 사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의 열쇠가 회복되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성

우리는 예언자 요셉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과 부활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준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왼쪽 그림: 에리 앤더슨,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예언자 이사야의 일부
위쪽 그림: 델 파슨, 첫번째 시현

한 위대한 사업이 수행되어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룩한 성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축복을 위한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죽은 자들을 위한 위대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영화로운 그 귀한 신권
영원한 열쇠를 갖게 되리니
진실한 예언자 천국에 올라
뭇 예언자 중에 면류관 쓰리.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그는 전능하신 분의 손에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하에 행했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로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이 위대하고 엄청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예언자요 계시자이며 선견자이자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를 잊지 맙시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중에 그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 절기는 참으로 훌륭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잠시 멈추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필립 브룩스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오늘 밤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네!
전나무와 소나무의 땅에도 크리스마스,
종려나무와 포도나무의 땅에도 크리스마스,
눈덮인 흰 봉우리 장엄하게 선 곳에도 크리스마스,
햇빛 눈부신 옥수수 밭에도 크리스마스…
오늘 밤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네!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만주의 주시니
더 장엄한 궁전도, 더 초라한 오두막도 없었다네.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 *말일성도 애송시* 중에서, 잭 엠리온 외 다수 편집[1996년], 30쪽)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가 되는 그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손을 뻗쳐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말일성도들은 사랑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결속된 사람들의 거대한 집합입니다. 전체로나 개인으로서 우리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 아래 만물을 지으시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요한복음 1:3)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야로서 날개 아래 치유하는 힘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셨으며, 위대한 의사였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 받을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태어나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요한복음 1:14) 충만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까지"(요한복음 1:12)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음 성구에 나타난 것처럼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하늘 보좌를 떠나 지상에 오셨으며, 정복당한 나라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의 먼지투성이 길을 걸으셨으며, 병자를 고치시고 교리를 가르치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요한복음 3:17) 하시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전에 우리는 그분이 거니셨던 곳인 목자의 들판과 베들레헴, 나사렛, 가나, 갈릴리, 예루살렘, 겟세마네 그리고 골고다와 빈 동산 무덤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 불리운 이 분에 대한 위엄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귀기울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후로 다른 모든 희생을 그치게 할 희생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림: 로버트 티 베렛,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일부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 아래 만물을 지으시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요한복음 1:3)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1~5)

그분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린도전서 15:55)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영예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탄생은 단지 하나의 또 다른 탄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은 구속이었으며, 그것은 그분의 은사를 불멸의 것으로 또한 전인류적이며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구속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위대한 속죄였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린도전서 15:20)이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모든 인류는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외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사 불멸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들 각자와 모든 인류를 위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모

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바쳐진 흠없는 어린 양인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사업을 회복하도록 명하신 분도 그분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취한 그분의 교회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함께 일어나
다 찬송 부르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30장)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용 전구 이상의 것이며, 장난감과 선물과 갖가지 장식품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 아들의 사랑입니다. 그것의 영향력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며 축복해 주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영원하신 아들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의 놀라운 방법과 메시지에 대한 신앙이며, 우리의 구속주이시자 주님이신 그분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리며, 그분의 신성한 속성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귀중한 선물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과 신앙을 서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든 훌륭한 크리스마스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과 친절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은 아내들에게 사랑을 보이기를 바라며, 아내들은 사랑 받고, 존중 받으며, 존경 받고, 칭찬 받는 것의 감미로운 기쁨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크리스마스 정신인 그 형언할 수 없는 매력으로 가득 차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독신 여러분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임을 앎으로써 감미로운 동반자 관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누가복음 1:79)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탄생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탄생은 단지 하나의 탄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모든 인류는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행복하고 훌륭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전합니다. 비탄에 잠긴 사람들도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치유력으로 슬픔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한복음 14:1)

그분은 커다란 시련의 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우리 모두 그 위대한 약속과 은사의 정신으로 이 복된 크리스마스 절기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크리스마스 절기라도 12월에 탄생한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 이세를 잊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2. 이 절기는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잠시 멈추어 위대한 여호와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 아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약속된 메시야이시며,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때이다.

3.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영예롭게 여긴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탄생은 단지 하나의 또 다른 탄생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불사 불멸과 영생으로 가는 문이다.

4. 크리스마스는 장식용 전구와 장난감과 선물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며 축복해 주는 평화며,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에 대한 신앙이다.

새로운 성탄절 전통

더글러스 프레즌

제가 열 세 살이었던 1995년의 성탄 절기에, 저의 가족은 새로운 성탄절 전통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의 무나우스 아마존누스에 있는 우리 동네를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여러 번 지나도록 우리는 아직도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평상시 대로 어머니는 저녁 식사로 구운 닭고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는 항상 구운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일요일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머니는 보통 때 준비하는 두 마리 대신에 세 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여분의 한 마리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봉지에 담은 다음, 팔려고 만든 300개의 케이크 중에서 한 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건 선물이다. 누구에게 줄 선물인지 아니?"라고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친구, 이웃, 와드 회원들의 이름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사람들은 다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넬을 위한 선물이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부넬은 초라한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제 나이 또래의 소년이었는데, 그는 거리의 부랑아였습니다. 자동차가 잠겨 있지 않으면 그 차에 들어가 타기도 하고, 우리 친구의 지갑을 훔쳐서 그 안에 든 서류들을 찢어 버리기도 하며, 개에게 돌을 던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를 동네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고소하기를 원했습니다.

놀라움을 진정시킨 후, 우리는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여덟 살 난 동생과 저는 닭고기와 케이크를 가지고 부넬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고, 우리가 부르니까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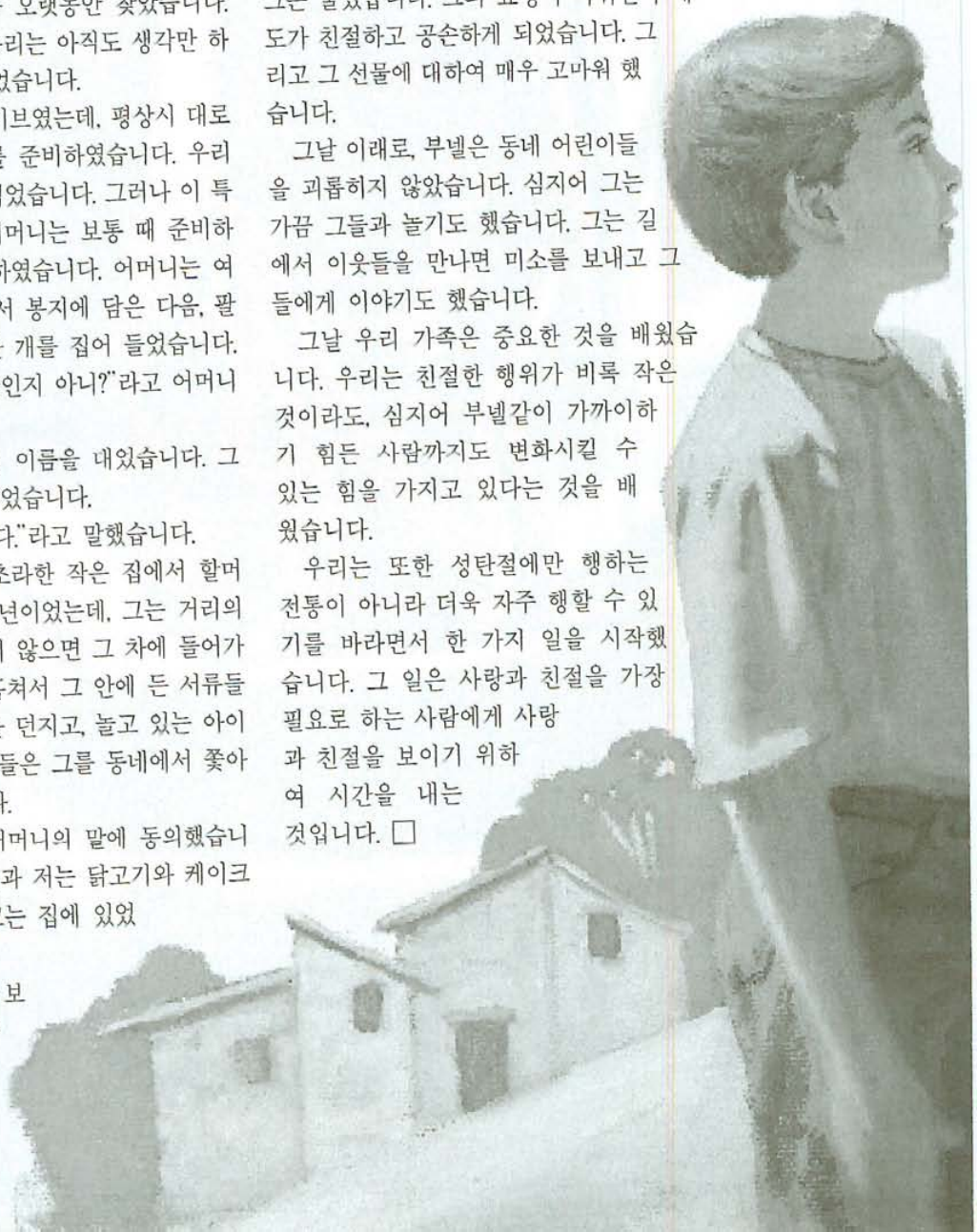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무언가 불평하러 왔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뭐에요? 뭔데요?"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그냥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그 꾸러미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부넬은 매우 놀랐습니다. "제거에요?" 그는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바뀌면서 태도가 친절하고 공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하여 매우 고마워 했습니다.

그날 이래로, 부넬은 동네 어린이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끔 그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이웃들을 만나면 미소를 보내고 그들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행위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심지어 부넬같이 가까이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탄절에만 행하는 전통이 아니라 더욱 자주 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사랑과 친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이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



ROBERT ANDERSON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

훌륭한 신앙을 지녔던 아담으로부터 아름답게 시적으로 말씀을 전한 이사야와 꾸밈없는 힘을 지녔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세를 거쳐 오늘날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분의 독생자는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한 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간증을 듣는 것은 특별한 즐거움이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죽음의 차가운 손이 닿을 때마다 그 시간의 슬픔과 암흑을 뚫고 견줄 수 없는 영원한 권세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모습이 빛을 발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잠든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다른 모든 왕들 위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인 주님은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십니다.… 이 생이 끝나 밤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 그분은 우리의 평안, 곧 유일하게 참된 평안이 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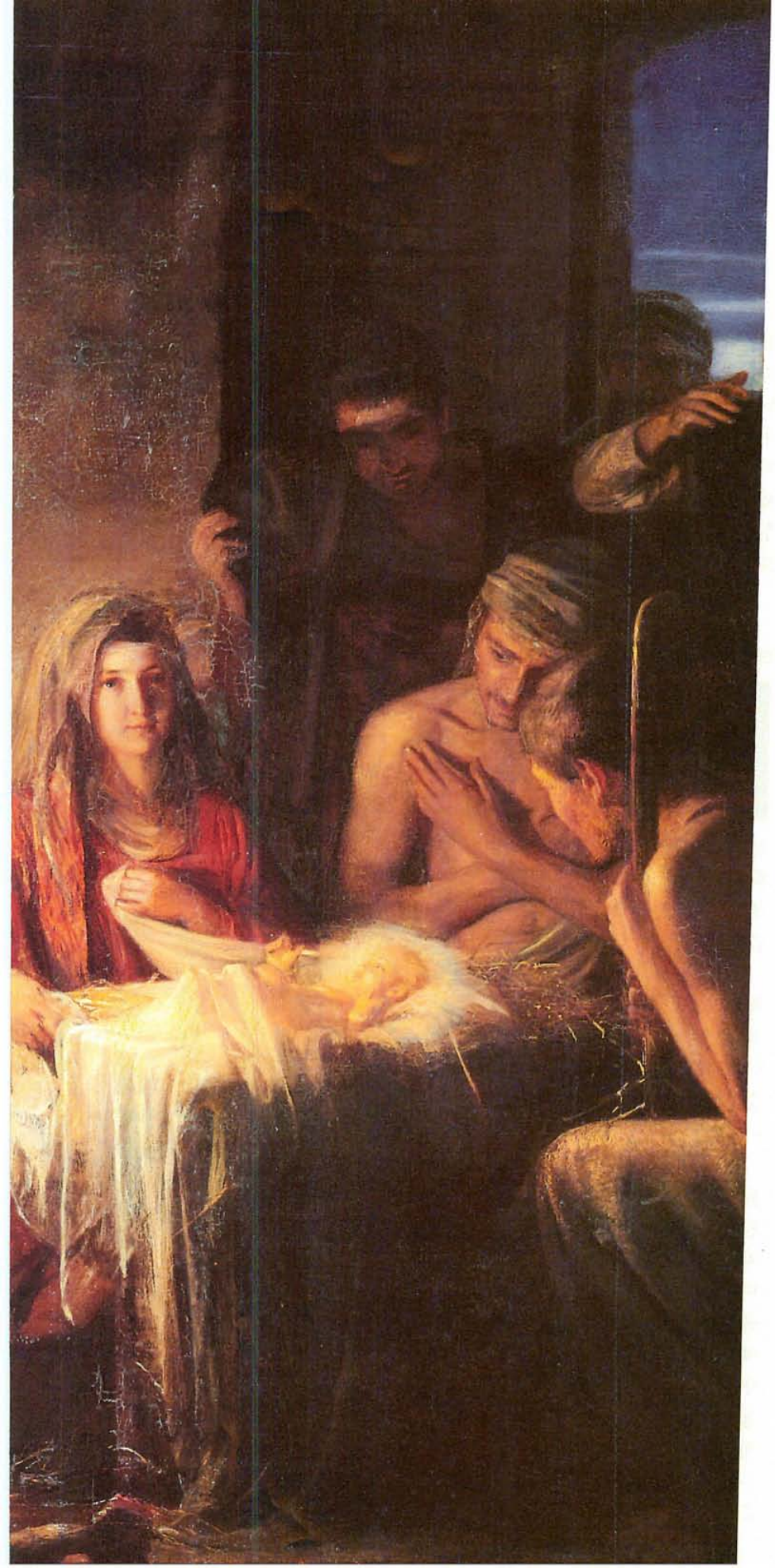
"영광의 왕이요 흠없는 메시야이시며 임마누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 인류를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자 주님이시며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신 그분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 계십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67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출생하자 위대한 축복과 시저의 동전보다 더 오래 지속하는 부와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는 왕 중의 왕, 만군의 주, 약속된 메시야이자 하나님

왼쪽 그림: 제임즈 테일러 하아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오른쪽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예수님의 탄생, 덴마크 프레데릭스보르 성의 예배당에 걸려 있음. 프레데릭스보르 성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굿간에서 태어나 구유를 요람으로 받으신 주님은 필멸의 인간으로서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늘로부터 나아오셨습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주님은 인간에게 더 높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세상의 사고를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축복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장님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인간 가운데서 베푸신 주님의 사명과 성역,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비를 베푸신 행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궁극적인 개척자이셨습니다. 앞서 가셔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5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세주이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지고의 희생을 겪으시고 사망의 사슬을 푸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속죄와 부활에 따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병고

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한복음 20:27)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속죄의 희생과 죽음의 사슬을 푸신 것을 통해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52~58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주님의 속죄를 통해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영원한 율법이 받아들여졌으며 필멸의 인간이 구속 받을 수 있는 중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택하시어 지상에 존재해 왔거나 지상에서 행해지게 될 사악함, 타락, 잔악함, 부도덕, 부패, 살인, 고통 및 폭행 등에 대해 인류를 위해 벌을 받아들이셨습니다."(*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76쪽)

엘 톰 페리 장로

"우리를 위해 태초로부터 한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 있어 중심 인물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은 지상에 있는 천국 자녀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신성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각기 구세주의 역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율법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57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1989년에 헤이트 장로는 병으로 위독해져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는 1989년 10월 연차대회에서 자신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아주 안정되고 평화로운 곳에 있었으며… 멀리 언덕 위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거룩한 분의 면전과 분위기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감에 따라 인자의 영원한 사명과 승영하신 상태에 관한 느낌이 더욱 더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의 구세주요, 모든 인류의 구속주이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 및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전에 알았었고, 결코 의심하거나 의아해 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제 영혼에 감동을 준 영의 영향을 통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써 이 신성한 진리를 압니다."(*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72-73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앨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슬픔과 병 중에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아신다고 계시해 주었습니다.(앨마서 7:11~12 참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질병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체험으로 그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연민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지셨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속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위안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갖고 재림하실 때 그분을 찬미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그분의 '친절', 곧 '선하심'을 찬미하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원히 계속해서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12쪽)

러셀 엠 넬슨 장로

"저는 그 모든 것들의 중요함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구속 받는 것은 속죄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표현으로 꼭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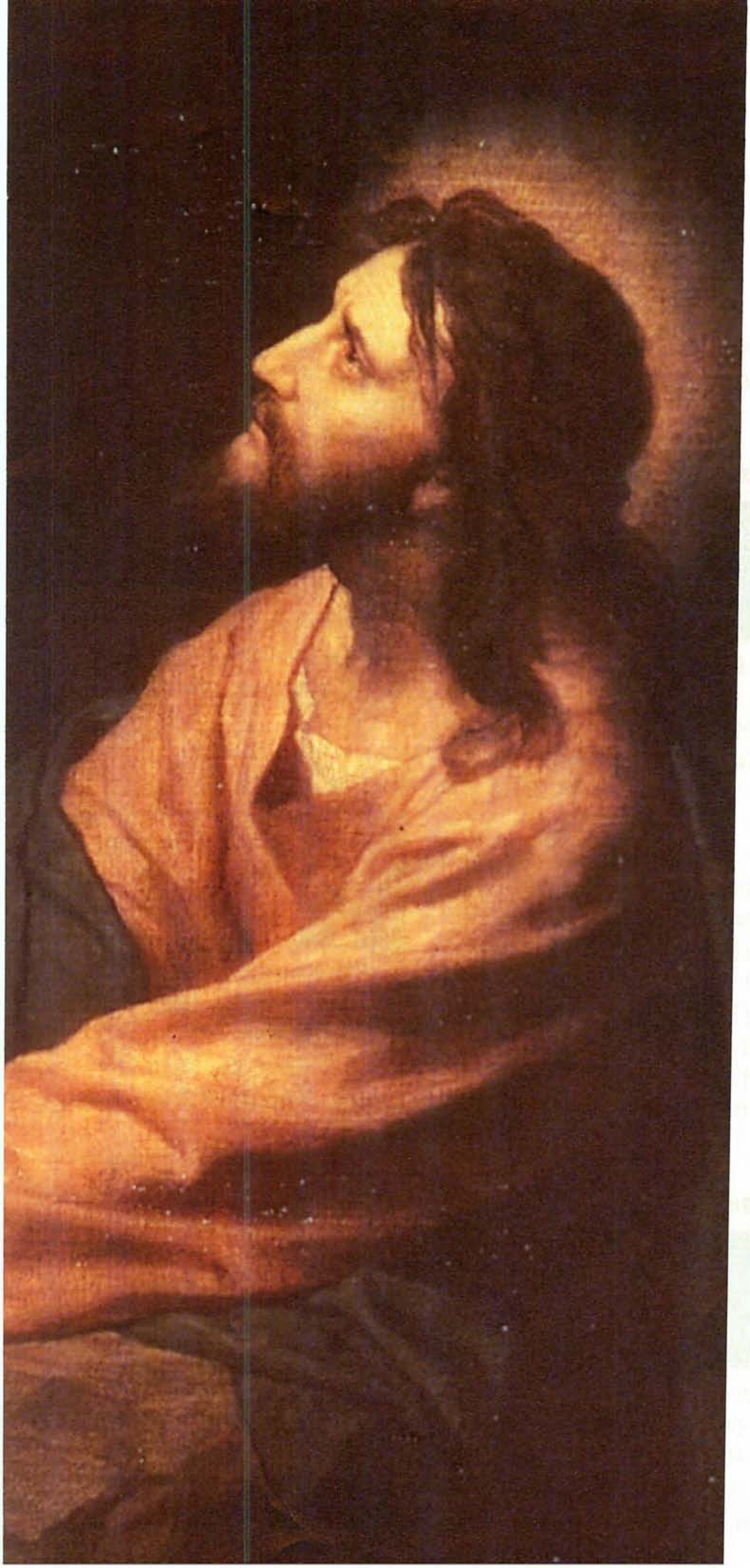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2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세상을 준비시키려고 회복되었습니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5~36쪽)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며,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따른다면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축복과 행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분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분, 행복한 생활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신 분, 우리가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34쪽)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를 구조하는 가장 위대한 구조의 영원한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채울 기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행에서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다 줄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그를 믿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 여정 동안 우리를 안전히 지켜 주실 것임을 압니다."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57쪽)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예수님은 영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시며, 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신회를 구성하고 있는 삼위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석했던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영들을 구하기 위한 천국 전쟁에서 그분은 선한 영들을 이끌고 사탄 및 그의 추종자들과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국 전쟁에서 우리는 모두 그분의 편에 있었으며, 현세에서도 예수님의 편에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71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가 가질 수 없는 공덕을 지니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에게 영체를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그의 독생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고 죄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공의의 요구를 벗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그는 사랑, 동정심, 인내, 순종, 용서 및 겸손을 포함한 모든 태도에서 완전하셨습니다. 그의 자비로 인해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공의의 빚을 갚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여하히 노력하여' (니파이이서 25:23 참조) 결국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53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살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비극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어둡고 황량할 수 있는 세상에 밝은 희망을 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가르치고 실행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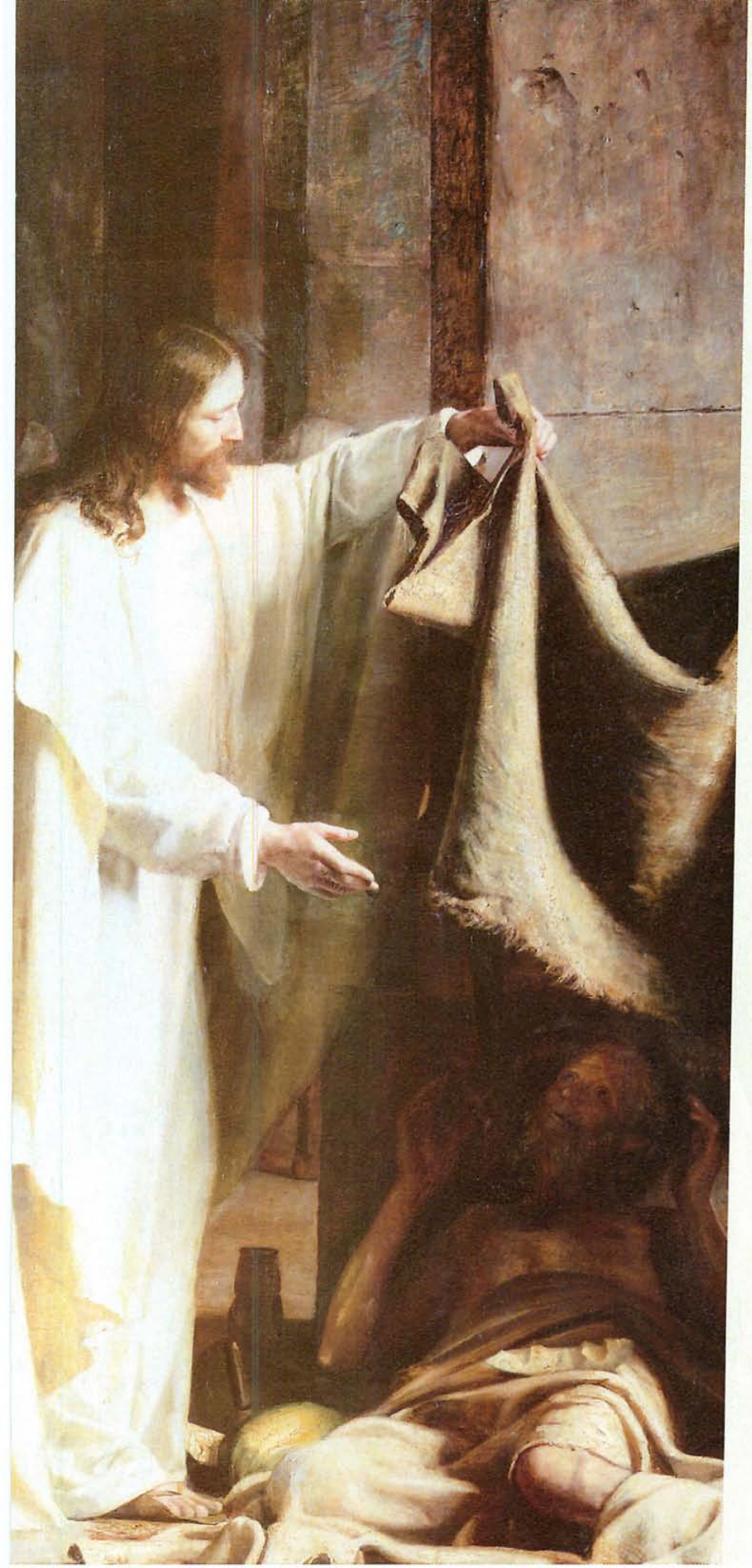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축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우리 개개인과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7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인생은 두려움과 실패도 나누어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며, 때로는 사적, 공적인 생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남아 있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삶은 고난과 비탄으로 참으로 외롭다는 느낌을 남겨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올 때에 저는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만이 온갖 모든 격정과 고난과 죄악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만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를 사랑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의 순수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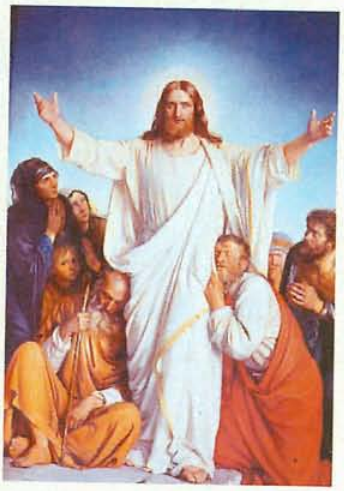


그림 : 헤럴 헨리 블로흐, 위로자이신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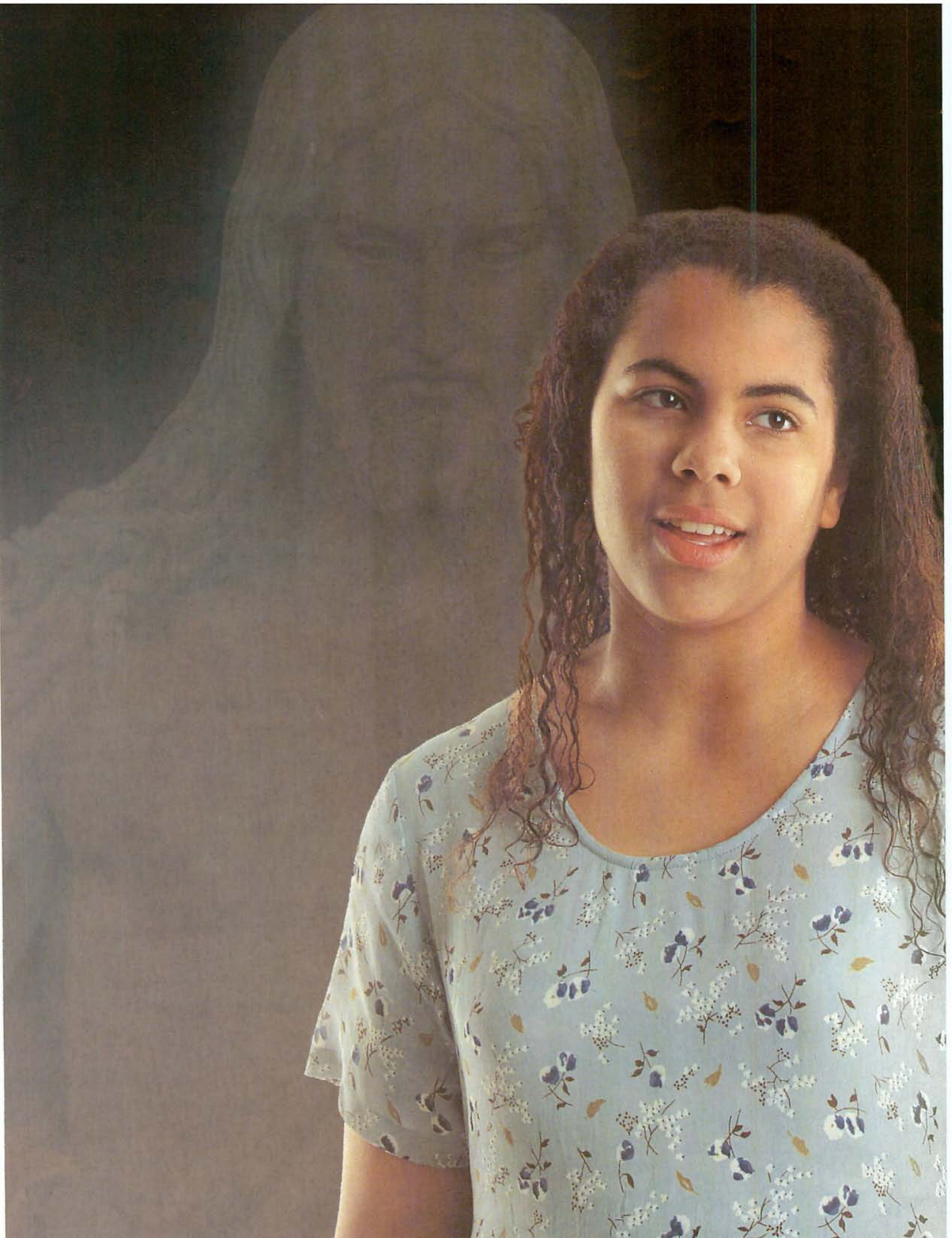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다."(*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32~33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으며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감정과 고통과 시련과 필요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변호인임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스러운 숲에서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시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3쪽) □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대린 리스고

말일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모사이야서 18:9)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높은 표준을 지키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됨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이 설령 어렵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따를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경주할 때 다음의 제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행동

■ 여러분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거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답대로 행동한다.

■ 설사 평판이 나쁠 경우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찍 집에 가거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거절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올바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예상치 않던 선교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기회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복음을 나눈다. 적당한 기회를 얻기 위해 간구한다. 언제가 적당한 때인지를 성신이 알려 줄 것이다.

■ 청남 활동이나 청녀 활동, 교회 모임과 가정의 밤에 친구들을 초대한다. 자신이 사려 깊고 예의 바른 초청자임을 기억한다.

■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할 때 행동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복음대로 생활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최선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 기꺼이, 즐겁게 자주 봉사한다. 봉사란 문을 대신 열어 준다거나, 대신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간단한 일일 수 있다. 부탁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 시간이 얼마 없을 경우라도 매일 경전을 읽고 공부한다. 경전 읽기를 잘 잊어버린다면 잘 보이는 곳에 메모해 둔다. 이렇게 함으로서 여러분은 영을 보다 가까이 느낄 것이며, 표준을 지키기가 더 쉬워짐을 알게 될 것이고, 친구들의 질문에도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다. 친구가 그 이유를 물을 때 변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여러분이 믿는 바를 설명하는 기회로 삼는다.

■ 항상 좋은 말을 골라 쓴다. 저속한 말이나 욕설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무력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어서 훌륭한 사고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가는 것이며 일이나 오락 활동을 피하는 것이다.

■ 교회에서든지 친구와의 조용한 시간이든지, 영의 속삭임을 느낄 때 자신의 간증을 전한다. 간증은 언제나 형식적이거나 아멘으로 끝나는 것으로 표현되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는 오리가 아니라 십리라도 동행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보다 더 자신을 좋게 느낄 일들은 없을 것이다.

■교회 부름을 받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쁘게 최선을 다해 부름을 완수한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은 봉사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태도

■항상 기뻐한다. 나쁜 일도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그런 경우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좋은 점을 찾아본다. 여러분이 명랑하고 낙관적일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된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충실하며, 신용있고, 용기를 주며 호의를 보인다. 구세주께서 바라시는 바의 친구가 된다.

■친구와 복음을 토론할 때는 담대히 하되 거만하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를 염려하지 않는다. (로마서 1:16 참조)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 물으면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변명하지 않는다.

■ 어떤 경기를 하든지 상대를 배려하며 공명 정대하게 한다. 경기에 지고 있는 경우라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기고 있을 때라도 뽐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나게 하면 다른 쪽 뺨도 돌려 댄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 대신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결과는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정직하도록 한다. 어떤 상황이라도 사전에 진실을 애기하도록 마음을 정한다.

■자신의 성취, 복장, 성적, 친구와 그 밖에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해 겸손하도록 한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보다는 남을 칭찬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칭찬 받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보다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된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경건하도록 한다. 주일날에 연사들과 교사들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한다. 기타 상황에서는 웃음이나 농담을 잘 조절한다.

용모

■검소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증인과 같은 모습을 갖추도록 한다.

■항상 단정한 몸차림의 습관을 실천한다.

■교회 모임과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방심하지 않는다. 모임 중이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의를 집중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한다.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 즉 미소를 보인다! 미소는 전염이 된다. □

나의 성탄절 외투

체릴 보일

제 남편 마이크가 갑자기 죽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바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영감과 선행과 인내의 끊임없는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어떻게 다섯 자녀를 기를 수 있을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쇼오나는 그 당시에 저의 방문 교육 교사였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저의 가정 복음 교사였던 그녀의 남편 짐과 함께 저를 영화관에 데리고 가거나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가을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져서 저는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었습니다. 그 외투는 15년 쯤 된 것이어서 매우 낡았습니다. 저는 쇼오나 부부와 함께 외출을 할 때 그 외투를 입는 것이 창피하였습니다. 안감이 낡아 헤어져서 짐이 제가 외투를 입는 것을 도와줄 때마다 제 손이 안감에 걸리곤 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저는 외로움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없이 맞는 첫 성탄절이어서 남편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잘 안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쇼오나 부부와 그들의 맏딸이 저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게 포장하여 카드를 붙인 선물 꾸러미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습니다. "체릴에게, 사랑으로, 마이크." 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선물상자 안에는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외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외투는 저에게 꼭 맞았습니다. "마이크가 살아 있었다면 당신에게 이 외투를 사주었을 거에요."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가 그 외투를 입을 때마다, 누군가가 항상 저에게 참 아름답게 보인다고 칭찬해 줍니다. 제가 그 외투를 입을 때마다 저의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와 저의 남편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행복한 마음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제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

성지의 평화

디 켈리 옥든과 데이비드 비 갤브레이스

지난 수세기 동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불려져 온 땅은 고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이었다. 이 성약(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정한 가계—이삭과 야곱(혹은 이스라엘, 창세기 17:19~22 참조)의 후손과 맺은 것이었다. 그러나 땅 상속을 포함한 성약의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었다.(니파이이서 30:2; 신명기 11:9, 16~17, 21; 아브라함서 2:6~11)

아브라함 후손의 일부인 유태인들은 수세기 전, 전쟁과 강제적인 추방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다가 지금은 일부 후손들이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 유태인들의 이 귀환은 말일에 이스라엘 잔류민이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오리라는 많은 예언들의 성취인 것이다.(스가랴 2:12, 8:7~8; 에스겔 11:17, 28~25, 36:24, 37:21; 신명기 30:3; 이사야 11:12;

사진 촬영: 예루살렘, 닐 폴버그; 사진 촬영: 비둘기, 텔러그래프 컬러 도서관/에프 픽 저 국제 협회

예레미야 16:14~15, 30:3 참조)

성지내의 정치적 충돌

우리 시대에 수백 만 명의 유태인들이 2,00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 땅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전부터 살아온 곳이다. 오늘날 그 땅에 정치적 충돌이 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인 아랍 팔레스타인들이 그 땅에 오랫동안 실제로 살아 왔고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국제법은 그들의 주장을 지지할 것처럼 보인다. 아랍측 주장에 의하면, 그들의 땅에 유태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부여 받은 특권으로나" 또는 "역사에 기초를 둔 원래의 토지 소유권으로나"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단지 무력에 의한 점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랍 팔레스타인인들(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같은 땅을 놓고 서로가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성지의 정치적 충돌의 근저에는 유태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들을 성지(특히, 예루살렘 땅)에 묶어 두는 종교적 감정이 깔려 있다. 종교와 정치의 혼합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를 건드려 장소와 상징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집요한 헌신으로까지 발전하는 수가 종종 있다.

세계의 주요 종교에 속하는 이 세 종교는 성전 언덕 혹은 *하렘 에쉬 샤리프*(성소)로 알려진 14 헥타르의 땅을 신성시한다. 유태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같은 장소에 주님의 거대한 성전 두 채가 그 후 1,000년 동안 세워져 있었던 것을 상기한다. 한편, 이슬람교도들은 이 땅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산 제물로 바칠려고 했던 땅이었고 마호메트가 어느 날 밤 시현으로 승천한 전설의 땅이었다고 하여 이곳을 신성시한다. 이슬람교도들은 이 땅을 성스런 곳이라 하여 13세기 전에 그 곳에(바위 돔) 사원 한 채를 지었는데 그 사원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세워져 있다. 양 종교 집단은 이 성지가 자기네 땅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성지를 놓고 그들이 주장하며 대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성서가 이 땅에 두 개 이상의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같이 살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 하다. 주님은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찌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에스겔 47:22; 이사야 14:1 참조)

이 성구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지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피차에 받아들일 만한 합의점을 찾아 타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양측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서 용어 "외인"은 우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외인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의무와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프란시스 브라운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이 같이 편찬한, *히브리어와 영어로 된 구약성서 사전*, 1975년, 158쪽 참조)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것은 "양자 중 어느 하나"의 명제가 아닌 것이며, 주님 포도 밭의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나 미래나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모든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데 혈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갈라디아서 3:26~29; 아브라함서 2:10 참조)

평강의 왕

경전은 중동과 전세계 평화의 궁극적 근원이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 요한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될 때를 예견하였고,(요셉 스미스역, 요한계시록 11:15 참조) 이사야는 이렇게 계시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이사야 9:6~7; 교리와

경전은 중동과 전세계 평화의 궁극적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

그림: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구속주

성약 38:22 참조)

한편,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말일 성도들은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필연적으로 닥칠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인간에게는 편파적으로 행동하려는 자연적 성향이 있다. 모든 상황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같다. 그러나 편파적 행동은 분열을 초래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져 오기 쉽다. 뿐만 아니라 불신을 낳고 평화에 요구되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든다면, 양쪽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손상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전세계에 전한 다음의 성명서의 내용을 기억해 둠이 좋을 것이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타고난 가치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 왔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말일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심'(사도행전 10:34~35)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992년 10월 18일, 보도 자료)

복음을 통한 평화

1979년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고하셨다. "유태인들과 아랍인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약(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한 편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쌍방을 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의 목적은 최상의 사랑과 단합심과 형제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니파이처럼 우리도 '나는 유태인을 사랑[합니다.] … 나는 또한 이방인도 사랑[합니다.]'(니파이이서 33:8~9)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함", *1973년 올해의 영적인 말씀*[1980년], 36쪽)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민족이나 국가간의 격렬한 정치적 분쟁 속에서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 주는 근원이 된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세계가 주님의 재림과 평화의 복천년에 대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 나라의 국민, 역사, 문화, 종교, 언어 등을 배우고 그것들을 존중함으로써 평화의 기초를 쌓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88:78~80, 93:53)

성지내의 분쟁 원인을 알아내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말일성도들은 분쟁 지역의 아랍과 유태인간에 이해의 가교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쌍방에 대해 얼마나 동정과 이해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공평하고도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사진 촬영: 매트 레이어

매주 일요일이 성탄절

로이스 티 바툴러메이우

제가 대학교 일학년 때의 12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성탄절기를 맞아 같은 방을 쓰는 저의 친구는 문에 황금빛 종을 달고 게시판을 장식했습니다. 와드 무도회와 학생 파티가 강의가 있는 날 사이 사이에 일정이 잡혀졌고, 새로 내린 눈이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 띠와 색 전등과 어울려 더할 나위 없는 절묘한 배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식에도 불구하고, 집을 멀리 떠나 온 것이 처음인 저는 허전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돈이 궁한 학생으로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간단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한정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절의 영은 어디로 갔지?

제가 성탄절을 지내기 위하여 집으로 가기 전날인 일요일에 저는 일찍 성찬식에 도착했습니다. 예배실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주 중에 매우 바빴었기 때문에 저는 긴장을 풀고 혼자 조용히 앉아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신권 소유자들이 성찬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성찬대에 성찬보를 깔았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밖에 새로 내린 눈보다도 더 희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빵과 물이 담긴 반짝 반짝 빛나는 성찬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조용히 또 다른 성찬보를 펴서 성찬 상징물인 빵과 물을 덮었습니다.

저는 빠져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구세주의 희생, 즉 속죄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래로, 저는 일년 중 어느 일요일에라도 성탄절의 영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은 바로 그 곳 성찬대입니다. □

"무엇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라"

관습적으로 선물을 교환하는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사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회원들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는 신앙과 지식과 지혜와 예언과 같은, 그동안 우리가 숙고해 왔던 영의 은사들이 있다.

물론 우리가 토론했던 것들보다 더 영적인 은사들도 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영적인 은사는 수도 없이 많으며 그 종류도 제한이 없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봉사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끝없이 주시는 거룩한 은총의 단순한 그림에 불과하다." (*신앙개조에 대한 새로운 증인*[1985년], 371쪽)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신다. "열심히 최선의 은사를 구하며 무엇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46:8)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어지느니라." (교리와 성약 46:9)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유와 이 은사들을 받는 이유는 죄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탄의 속임수에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은사들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교리와 성약 46:7~8 참조)

영적인 은사를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서로를 살찌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이로써 유익을 얻게 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46:11~12)

"열심히 최선의 은사를 구하라."

모든 교회 회원에게 최소한 한 가지의 영적인 은사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은사"를 구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러면 모든 영적인 은사 중 어느 것이 최선의 은사인가?

그 한 가지 답으로, 최선의 은사란 그 은사를 받을 당시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이다. 새로운 개종자의 경우는 아마도 보다 강한 간증이 필요할 것이다. 인생의 그 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이다. 복음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때 또 다른 은사를 구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모든 은사 중 최선의 은사는 자비, 또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다. 바울은 이렇게 지적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고린도 전서 13:2; 모로나이서 7:47~48, 10:20~21, 32 참조)

캘리포니아 내퍼의 몰리 소렌슨 자매는 십대 아들과 심한 언쟁을 한 어느 날, 이 사랑의 은사를 구했음을 기억한다. 자신의 행동에 화가 난 소렌슨 자매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청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명상한 후에 있었던 일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마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영적인 힘의 큰 은사를 부여 받기 위해서 매일 매일 부단히 노력한다면 비록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성질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몰리 자매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대로 생활하면서 사랑과 평화와 그 밖에 그녀가 원하는 영의 열매를 누릴 수 있었다.(*엔사인*, 1989년 9월호, 30쪽)

우리가 그러한 은사들을 열심히 구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덕을 쌓으며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교리와 성약 46:33) 하고, 이 놀라운 은사들을 주신 이유를 항상 기억하는 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다.

-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그들의 은사를 어떻게 나누는가?* □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돈 엘 설

199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은 회원들이 복음 원리와 교리를 배워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온전하게 되도록 격려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8년 1월부터,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새로운 교과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교과 과정은 참여자들의 지식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음 공부, 영성, 봉사와 지도력이 보다 더 향상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새로운 교과 과정의 목표는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교과 과정의 새로운 체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월 일요일마다 특정한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번째 일요일 이날 각 신권 정원회와 대제사 그룹 모임은 신권의 의무를 수행함에 초점을 둔다. 정원회 회장단과 대제사 그룹 지도자들이 신권의 의무를 가르쳐야 한다. 여기에 맞추어 이날의 상호부조회는 개인의 영적 발전과 간증을 강화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상호부조회의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둔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이날 가르친다.

두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 이날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각반 모두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을 학습한다. 1998~1999년도의 학습 교재는 신간서적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이다.

네 번째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의 이날 학습 과목은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이다. 각 공과는 대관장단이 지정한 우리 시대에 관한 제목들과 참고 자료들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현재의 교회 대관장과 두 보좌와 십이사도들이 쓴 기사와 연설문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일요일 해마다 네 번 혹은 다섯 번 있는 다섯 번째의 일요일은 토론하는

교과 과정의 주요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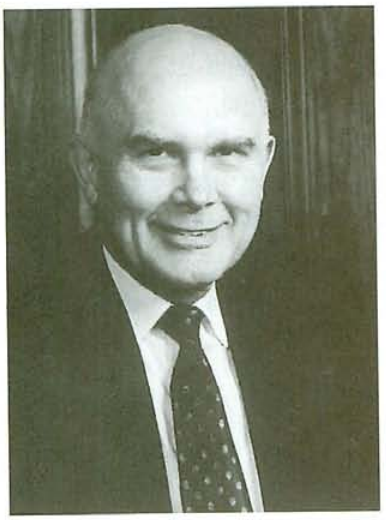
사진 촬영 : 제드 클라크

"우리는 함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약의 아들로서 (그리고 딸로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떠한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날이다. 토론 주제는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지역의 교회의 필요 사항에 맞도록 결정한다. 감독단 또는 지부장단(혹은 스테이크 부장단, 선교부장단, 또는 지방부장단)이 이 토론을 진행한다.

다섯 번째 일요일의 토론회는 첫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일요 공과와는 달리, 멜기세덱 신권반과 상호부조회의 합동 모임으로 열 수 있다. 또는 성인 형제 그룹과 성인 자매 그룹으로 분반하여 따로 열 수 있다.

대회나 기타의 이유로 공과를 빠뜨렸을 경우에는 다섯 번째 일요일 모임에서 보충할 수 있다. 이런 보충 공과를 가르칠 때에는, 모임을 형제 그룹과 자매 그룹으로 분반하여야 한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그들이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심오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복음을 적용함

새로운 교과 과정을 개발하라는 임무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그의 두 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지시한 것이었다. 새로운 교과 과정 개발을 감독하는 일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두 분은 새로운 교과 과정은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지도자들이 길을 제시해 줄 때, 회원들은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 받는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의 적용*이 곧 그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과 과정은 특히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 혹은 이들 조직을 통해서, 복음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 새로운 교과 과정으로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역할이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신권 정원회 회장단(또는 대제사 그룹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회원들을 가르치는 것은 지도력의 한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신권을 가진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동일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동일한 공과를 배우지만 새로운 교과 과정 실시 방침은 분반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분반 교육이 독특하고 독자적인 교육장 안에서 신권 정원회와 상호 부조회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힝클리 대관장은 신권 정원회와 대제사 그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원 강화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다. 이 새로운 교과 과정 관련의 교육 자료와 함께 각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배부된 책자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유의 사항*에는 힝클리 대관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던 1977년에 말씀하신 다음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우리의 신권 정원회가 정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회원 각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때야말로 놀라운 날, 주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정원회의 회원입니다. 나는 나의 형제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약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당황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언제 불어 닥칠지도 모르는 적대 세력에 굳건히 견디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굳건히 서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유의 사항*, 1995년 10월, 2쪽;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31~132쪽)

이와 비슷하게, 상호부조회 자매들도 역시 복음의 원리를 배워서 조직의 힘과 단합에 적용함으로써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스 장로는 이같이 말한다. "자매들은 따로 모임을 갖는 기회를 기뻐할 것이고 또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독신 자매의 경우에 중요

한 일입니다. 독신 자매들이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면 자매애를 충분히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은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과 복음 원리반의 합동 모임으로 계속 복음 교리 교육을 받게 된다. 주일학교 교과 과정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의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스테이크 부장이나 지방부장이 합동 학습 주제를 지정할 때에는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회원들과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다섯 번째 일요일에 모임을 같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다섯 번째 일요일에 스테이크 대회나 연차 대회 때문에 빠뜨렸던 정규 교과 과정 공과를 가질 경우에는 별도 모임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교과 과정의 개발을 지시함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할 때, 새로운 교과 과정이 영감을 통한 지시로 개발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옥스 장로와 홀런드 장로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의 학습 교과 과정을 개선하라는 임무를 지명 받았을 때, 두 분은 모두 브리감 영 설교집의 두 번째 읽기를 막 끝마치고 있었다. 이 장로들은 각자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두 분은 브리감 영의 설교집이 현재의 교회 학습용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 이 두 십이사도와 이 새로운 임무에 지명된 칠십인 서너 명이 자기들의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영감에 찬 한 모임을 갖게 되었다. 홀런드 장로는 그 모임을 회상하며 "그 날은 모든 제안들이 한꺼번에 나온 날"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 과정 도입을 위한 가능한 방법들을 놓고 토론이 계속되는 사이, 옥스 장로가 칠판 쪽으로 나아가 월 중 각 일요일에 실시되어야 할 교육 방법에 관하여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그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제안되었다. 토론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결국 최종안이 도출되었다. 모임이 끝날 때 최종안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건의해야 할 사항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홀런드 장로는 말한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그 최종안을 승인하였고, 그 후에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책자와 첫 번째,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일요일 용 교육 자료를 편집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때 총관리 역원들은 브리감 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특별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옥스 장로는 말한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이 교회 봉사 위원회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요일에 사용될 브리감 영 책자를 펴냈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서 첫번째 일요일에 사용할 교재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네 번째 일요일의 교과 과정 준비는 대체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이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자기들이 생각한 우리 시대에 관한 교육 자료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최근의 교회 잡지들과 출판물에 나오는 기사들을 교육 자료로 선택하였다.

옥스 장로와 홀런드 장로는 또 이 교과 과정 개정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던 전, 현 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전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엘레인 엘 잭 자매, 지에꼬 앤 오까자끼 자매,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은 자신들이 해임될 때 이 선물을 남겨 두고 가고 싶어서 이 사업에 몰두했지요. 그 분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라고 홀런드 장로는 말한다.

이에 옥스 장로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신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매리 엘런 우드 스무트 자매, 버지니아 우리 젠슨 자매, 셰 엘 듀 자매)도 역시 이 새 교과 과정을 마련하는 일에 전념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첫번째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또는 대제사 그룹)와 상호부조회의 경우에는 매월 첫 일요일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날이며 회원들이 자신들의 의무와 역할에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준비시키는 날이다.

신간 책자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유의 사항*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과 수련 장로들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일요일 정원회 또는 그룹 모임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은 그들이 더 훌륭한 남편, 더 훌륭한

아버지, 더 훌륭한 아들이 되며, 교회 사명을 달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합당하고 충실한 신권 소유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유의 사항*, 3쪽)

이 신간 책자는 신권 지도자들은 회원들과 회원들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소책자에는 그러한 필요 사항 일부를 내다본 일련의 제언들이 실려 있다. 이 제언들은 첫번째 일요일에 한 개 이상의 정원회 또는 그룹 모임에서 사용될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자는 이렇게 강조한다. "이러한 것들은 제언에 불과하다. 그러한 제언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도자들은 회원들의 필요 사항과 상황에 알맞게 융통성을 갖고 그러한 제언들을 수정하고 통합해야 한다."(*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유의 사항*, 3쪽) 13개의 제언에는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신권을 활용함", "회원들이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베풂" 등이 나와 있다.

한편, 이와 비슷하게 신간 책자 *상호부조회 지도자 유의 사항*은 상호부조회 모임과 모임에서 공부할 자료들은 "(1) 각 자매가 복음의 지식을 넓히고 결심을 강화하며, (2)교회의 사명, 즉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모로나이서 10:32) 되라고 권유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돕는 데 자매들을 단합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상호부조회 지도자 유의 사항*, 1쪽)

상호부조회의 새로운 교과 과정의 융통성은 첫번째 일요일의 "영적인 발전과 간증 모임"에 관한 설명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교회의 각 상호부조회는 각각 다른 상황과 필요 사항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드와 지부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충족시키게 된다. 그러나 인간(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원리는 보편적이다. 매번 일요일 모임은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려는 결심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상호부조회 지도자 유의 사항*, 2쪽)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첫번째 일요일 모임의 일부를 활용하여 "자매들에게 상호부조회의 목적에 대해 교육하고 복지 모임과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논의된 신권 지도자들의 지시 사항을 전할 수 있다." 회장단은 짧은 복음 토론도 실시할 수 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 유의 사항* 책자에는 자매들이 자신의 간증을 키우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며, 서로에게 더 잘 봉사하는 기술을 배우는 등을 돕는 20가지 토론 제언이 들어 있다. 간증 모임은 여전히 이 첫번째 일요 모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첫번째 일요일에 자매들을 교육하여야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는 전통적으로 영적 생활, 가정 교육 등 특정한 제목의 공과를 가르쳐 왔던 교사들이 이후 그대로 상호부조회 교사로서 공과를 가르치도록 지명될 수 있다. 상호부조회 회장과 함께 봉사하는 두 자매는 이후로는 교육 담당 보좌, 가사 담당 보좌라고 불리지 않고 제1보좌, 제2보좌로 호칭된다는 것을 와드와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자매들의 교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상호부조회에 있으며 상호부조회 회장이 두 보좌에게 임무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초등협회나 청녀회에서 봉사하거나 청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로 상호부조회 모임이나 신권회에 참석할 수 없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옥스장로는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신권 정원회 지도자 또는 그룹 지도자들은 이 첫번째 일요일 모임에서 토론된 내용과 부여된 임무를 그들에게 알려 주는 어떤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일요일에는 이들 회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침, 기사, 공과 등의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가능하다면, 그들의 배우자나 다른 성인 가족이 그날의 상호부조회 또는 신권회 공과 토론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두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

힝클리 대관장의 지시로 이 새로운 교과 과정에는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이 포함되었다.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위대한 교사이며 정통한 역사가입니다. 역대 대관장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수시로 교회 대관장들의 말씀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그 밖의 총관리 역원들에게 전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교회의 일반 회원들에게 그런 말씀 전하는 것을 간절히 열망한다.

1998년도와 1999년도 학습용으로 사용될 공과책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은 18세 이상의 모든 말일성도들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이 책은 개인적인 복음 학습을 위해 회원의 복음 참고서로 비치될 예정이다. 다른 대관장들의 가르침은 그 다음 수년 동안 포함될 것이나 그 분들의 보좌들의 가르침은 반드시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왜 브리감 영의 가르침부터 시작하여야 하는가?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인물이었습니다. 영 대관장의 가르침은 참으로 광범위해서 우리는 그 분의 말씀을 철저히 검토하고 충실하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으로 편집하기가 비교적 쉬었지요." 다음 회기 연도에 사용될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비롯한 다른 대관장들의 가르침을 편집하는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홀런드 장로는 브리감 영 대관장은 예언자로서의 자신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된 복음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회원들에게 수십 년 동안 가르쳤음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이 두 번째 대관장이야말로 새로운 교과 과정의 목적의 하나인 '복음 적용'의 대가였다고 말한다.

회원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 영 대관장의 가르침이 생활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 회원들과 그리고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는 브리감 영을 위대한 식민지 개척자, 위대한 미국의 모세로 보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외하는 것은 그의 깊은 사상입니다. 그는 모든 표준으로 볼 때 재기가 넘치고 영감에 찬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쓴 글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옥스 장로도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같이 말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 가르침들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심오한 것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예언자가 가르친 복음 원리의 참됨과 아름다움과 가치에 감동되어 크게 고양될 것입니다. 그 분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옥스 장로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가르침에 있는 다음 글을 예로 든다. "사람들 가운데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가르쳐진 적이 없는 원리를 자신이 앞장 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러한 망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악마가 자기를 사로잡아 사악한 마당으로 끌고가려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윗소 장로가 인용함[1978년], 77~78쪽) 예언자들이 가르치지 않은 복음 원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많은 지역의 회원들이 갖고 있는 교수 자료들은 아마 전부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입수해야 할 자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리를 퍼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옥스 장로는 말한다.

네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의 새 교과 과정의 주안점은 우리 시대의 가르침과 시사 문제를 학습하는 것이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오늘의 문제점들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및 대제사 그룹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대관장단이 지정한 10가지 주제와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또는 지방부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 2가지 주제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지역 지도자들이 선정한 두 가지 제언 중 한 가지는 그해 전반기에 가르치고 다른 한 가지는 후반기에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지정된 공과 자료는 최근의 교회 잡지에 실려 있는 현재의 교회 대관장과 두 보좌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의 가르침에서 발췌된다. 이 밖에 추가로 지정된 일부 자료는 교회내의 다른 최신 출판물에 나와 있다.

교사들은 다른 자료도 이용할 수 있는가? 적용이 가능한 경전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지정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찾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못된다.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회원들을 격려해 주고 깨우쳐 줄 공과에 사용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회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개선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많은 지역의 회원들이 갖고 있는 교수 자료들은 아마 전부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입수해야 할 자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교회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에 담아 놓은 말일성도 자료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교사들까지도 충분한 교육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훌륭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번역된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지역의 회원들이 더 많은 자료를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지침이 현재 마련 중에 있다.

만일 교회 잡지가 없다면,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은 실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옥스 장로는 말한다. *엔사인*과 *성도의 벗*은 앞으로도 계속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의 네 번째 일요일 공과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공급원이 될 것이다. 모든 회원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교과 과정 학습 자료의 일부로 쓰일 교회 잡지들을 구독할 것을 교회는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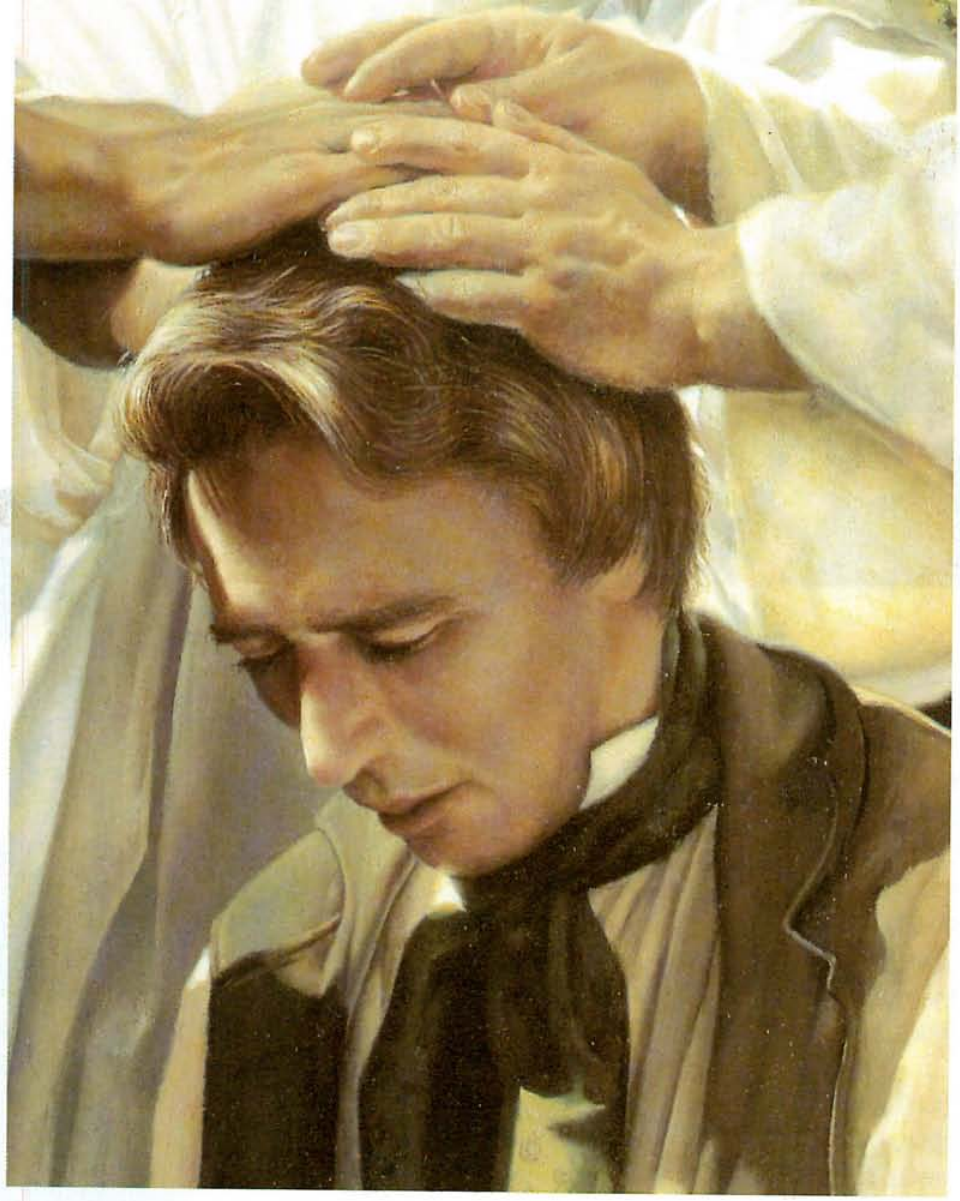
회원들을 양육함

옥스 장로와 홀런드 장로는 질적으로 향상된 공과 교육이 새로운 회원들의 활동을 지속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현재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비활동 회원들을 활동화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옥스 장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다. 교회에 들어오는 개종자들은 선교사들로부터 기본적인 복음 교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침 받는 동안 영의 영향을 강하게 느낀다. 따라서 와드(또는 지부)에 들어온 후에도 그들은 계속 자신들의 영을 고양시켜 줄 복음 교리 공과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활동화되기를 원하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도 역시 자신들의 결심을 복음의 지식으로 다시 강화시켜 줄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 내의 모든 회원들은 복음 교리를 더욱더 잘 이해하여 자신의 간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새로운 개종자의 경우에는 6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선교사 토론 후 영적으로 강화시키지 않고 그들을 방치한다면, 그들에게서 그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일반 회원들의 경우도 만일 그들이 자신의 생애 동안 복음 원리를 계속 공부하고 숙고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그런 일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힝클리 대관장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모로나이서 6:4)으로 회원들을 양육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홀런드 장로는 또 이렇게 말한다.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이 회원들을 양육시켜 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



요셉 형제에게 바치는 찬사

삼십 팔 년이라는 요셉 스미스의 생애 중 대부분 동안 그는 소문으로만 그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신비에 싸인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에게 그는 주님의 예언자였고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즉 그의 가족에게 그는 형제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또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의 가족을 사랑했고 가정의 화목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실린 그림들에서 화가 리즈 레몬이 포착한 것이 바로 그런 요셉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초기 회원들이 총관리 역원을 "장로" 혹은 "회장"으로 지칭했지만, 예언자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냥 "요셉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요셉 형제로 불리우는 것을 좋아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지냈고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페이지에서 그를 예언자로서 뿐만 아니라 "요셉 형제"로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거듭 이르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듣뇨?… 사스케하나 군 하모니와 브룸 군 콜스빌 사이의 광야에 있는 사스케하나 강변에서 왕국의 열쇠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지녔음을 몸소 선언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음성이로다."
(교리와 성약 128:20)

아버지가 나를 안고 계시다면

요셉이 일곱 살 때에, 그의 다리가 심하게 감염되었습니다. 그를 진찰한 외과 의사는 감염된 뼈를 잘라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외과 의사는 요셉에게 움직이지 않도록 끈으로 몸을 묶고 고통을 덜기 위하여 술을 마실 것을 권했습니다. "아뇨, 저는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겠으며, 묶이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서 저를 안고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뼈를 잘라내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참겠습니다."라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통을 견디는 가운데 수술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루시 맥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역사*[1958년], 56~58쪽)

모로나이

요셉이 열 일곱 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내 침대맡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분이 공중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 분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요셉 스미스서 2:30, 33)

몸과 마음의 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가장 숭고한 그리고 가장 순수한 인간성으로 가득 찬 분이었습니다. 종종 그는 천진 난만한 아이처럼 구기 경기를 하고, 친형제들과 레슬링을 하며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등에 막대기를 대고 있는 사람처럼 딱딱하지 않았으며, 얼굴에 놋쇠를 입힌 사람처럼 무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설교 수록집*, 5권, 1894년 12월 23일)

아빠가 됩시다

"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만 더 만나 자유롭게 사랑과 정을 나누며 친목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의 뺨에 키스를 할 수 있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로 저의 가슴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엠마에게 보낸 편지, 1838년 11월 12일)

고사리 손

"제가 집에 돌아오자 마자,
저는 병들어 누워 있는 아내 엠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교회 정사*, 5:209)
요셉과 엠마는 총 다섯 자녀를
잃었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감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 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나는 죄없이 죽음을 당하려니와 세상 사람들은 저는 잔인한 자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135:4)

엠마의 찬송가

주님은 엠마 스미스를 "네가 부름 받은 직분은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 곧 네 남편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위안하는 말로써 위로하는 일이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나니 나의 교회에서 사용할 거룩한 찬송가의 선정을 맡길…", "내가 부른 선택된 여성"(교리와 성약 25:3~12)이라고 불렀습니다.

엠마가 그녀의 부름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그녀의 시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가 한 청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그런 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불굴의 용기와 열성과 인내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한 해, 두 해, 또 한 해, 그녀는 시종 갖은 노고와 곤경을 견디며 해내었습니다."(*요셉 스미스의 역사*, 190~1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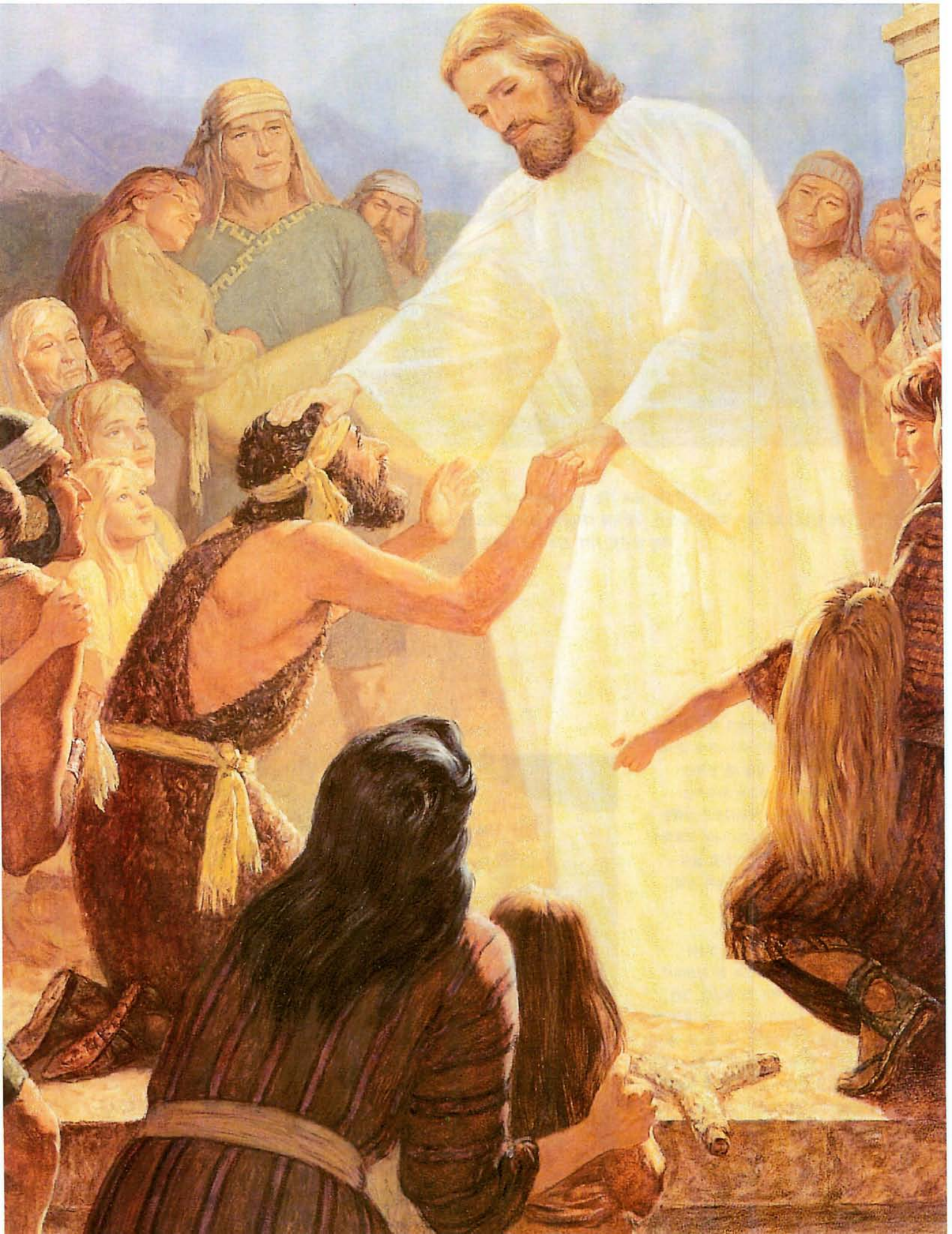
"하나님 제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요셉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포로로 잡혀 삼베 덮개가 단단히 못질된 포장 마차에 결박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왔을 때, 요셉은 그의 손을 삼베 밑으로 내밀어서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 이 불쌍한 에미에게 한번 만 더 말해 다오. 네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 차마 떠날 수가 없구나."라고 그의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요셉은 흐느끼며 "하나님, 제 어머니를 축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포장 마차가 떠나면서 그와 그의 어머니를 갈라 놓았습니다.

요셉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리버티 감옥에서 육 개월을 보냈습니다.(루시 맥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역사*, 290~291쪽) □



빛이요 생명이라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는 메시야요
구세주이며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와 교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활 수단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최근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를 처음 방문한 한 친구가 저의 사무실에 찾아 왔습니다.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헌신적이고 성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그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회원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가르쳐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관심사에 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그 친구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템플 스퀘어로 가서 북쪽에 있는 방문자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몰몬경의 사도와 예언자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 뒤 우리는 이층으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토르발드슨이 만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커다란 동상이 있었으며 그 동상은 광활한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의 웅장함을 나타내는 배경을 굽어 보고 있었습니다.

팔을 앞으로 내밀고 손에는 십자가에 못박힌 흔적을 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동상을 바라보는 동안 저의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서서 구세주에 대한 생각에 잠겨 경건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런 대화도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중에 우리는 거룩한 숲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투시화를 지나갔습니다.

템플 스퀘어를 떠나서 헤어지면서 친구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경시켜 줘서 고맙네. 전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자네의 신앙에 대해 뭔가 이해하겠네." 나는 우리가 기독교인인가 하는 문제에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와 같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는 메시야요 구세주이며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은 그의 이름 뿐입니다.(모사이야서 3:17, 5:8; 교리와 성약 18:23 참조) 우리는 그를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의 교회,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선교사와 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해력을 일으켜 주는 빛의 근원이 되시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이 우리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림: 해리 앤더슨, 산상 수훈

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언자 니파이가 몰몬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이서 25:26)

신앙개조 제1조에 있듯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며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신 분입니다.(모세서 1:31~33, 39, 2:1~2; 교리와 성약 20:17~26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독생자요 여호와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시며 메시야요, "온 땅의 하나님"(니파이삼서 11:14)이십니다.

몰몬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을 방문하신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는 흰 옷을 입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리 가운데 서시어 손을 내미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파이삼서 11:10~11)

그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확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 즉 만물의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현대 계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증한 요한의 간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구속주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세상에 오신 진리의 영이시라. 그 안에 사람의 생명과 빛이 있느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교리와 성약 93:9~10)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는 그 빛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교리와 성약 88:12)기 때문입니다. 그의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교리와 성약 93:2)입니다.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비춰 줍니다.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니파이삼서 18:16)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의 빛과 계명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율법이요, 빛이니."(니파이삼서 15:9) 우리가 그분의 영에 의해 계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증거하는 성신의 속삭임에 예민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20:26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권세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권

예수 그리스도는 경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니파이이서 11:5)으로 불리는 그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세상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속죄가 우리를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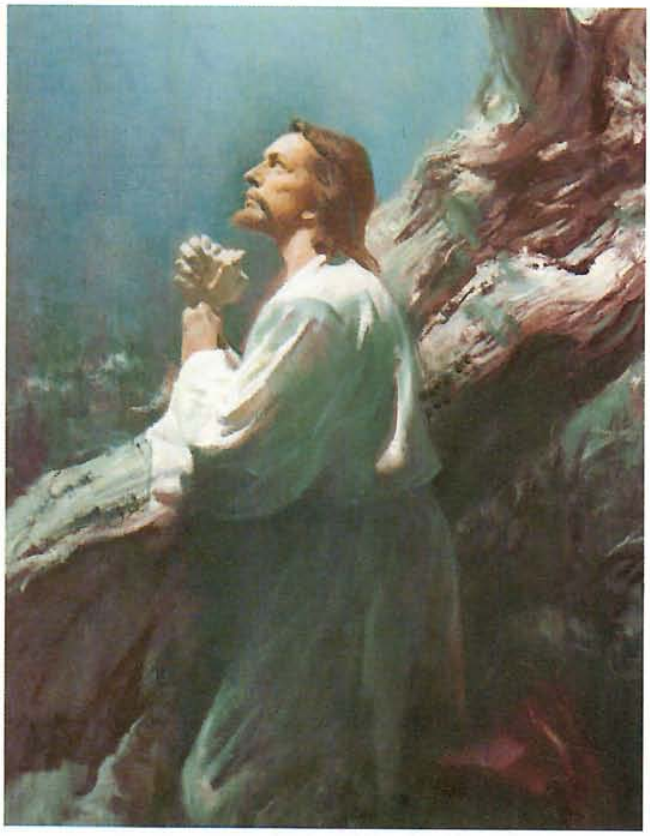


그림: 해리 앤더슨,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

고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십니다. "내가 이른 바를 믿는 자는… 이것들이 참됨을 알지니, 이는 나의 영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가르침이라.

"무엇이라도 사람들에게 선행을 가르치는 것은 나로 인함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선이 비롯되지 아니함이라.…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세상의 진리라."(이더서 4:11~12)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해력을 일으켜 주는 빛의 근원이 되시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이 우리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니파이이서 11:5)으로 불리는 그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세상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의 부활과 속죄가 우리를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야곱은 이 생명의 은사를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이 음흉한 괴물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뇨. 진정 저 괴물은 지옥이요, 죽음이며, 내가 이를 육신의 죽음이요 영의 사망이라 부르는도다."(니파이이서 9:10)

우리의 불사 불멸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세상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로마서 3:23)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주는 죄 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니파이이서 2:7)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영적인 사망을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기신 구세주의 승리가 가져다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침례 받음으로써,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신앙개조 제3조) 주님께서 제정하신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불사 불멸의 은사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영생의 은사,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교리와 성약 14:7)를 받는 데 필요한 의식을 받아야 하며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말일성도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남녀에게 몰몬경의 예언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그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의 구속의 능력을 얻기 바라노라. 참으로 너희는 주께로 나아와 너희 영육을 주 앞에 드리며 쉬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라. 주가 살아 계시니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옴나이서 1:26)고 권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자이시며 세상의 빛이시오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

1987년 10월 반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가슴을 에이는 깊은 슬픔 속에서조차도

스베인뷰르그 구드문드스도티르

저는 잠들어 있는 저의 아들을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투여한 진정제로 인해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마치 커다란 쇠뭉치가 제 가슴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참으로 저의 온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겨우 스무 살인 그는 그의 형과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눈이 넘인 아이스랜딕 산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중 한 젊은이는 우리의 지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떠났습니다. 막내는 이제 태어난 지 겨우 육 주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세 친구는 1월의 그날 아침에 근처에 있는 산에 오르기 위하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산에 눈이 쌓여 있을 것이고 일기 예보에서 날씨가 나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갈 때 그들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을 살아서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밀려오는 슬픔으로 저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고통이 비수가 되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 젊은이들은 우리의 아주 작은 지부에 있는 신권 지도자의 거의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려 한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평상시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를 감사하기 위하여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날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만 무엇인가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아들이 생각나자 제 가슴에 부끄러움이 밀려 왔습니다. *어떻게 그를 잊을 수 있을까?* 그도 다른 두 젊은이와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살아서 돌아 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저에게로 돌려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죽은 그 두 젊은이, 저의 큰 아들과 저의 친구 즉 지부장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알았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두 젊은이가 모두 개종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를 믿었고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이 모두 죽기 전에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주님 안에서 갔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 받은 일입니까!

그 다음 저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 있는 저의 네 자녀와 착한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저의 감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 위의 짐이 가벼워지며 제 온 몸에 따뜻한 생명을 주는 느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고 제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가슴을 에이는 슬픔이 여전히 있지만 또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 깊고 깊은 슬픔 속에서조차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평화와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 열쇠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 즉 우리가 가진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그 두 사람이 죽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

이 끔찍한 날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개척자

한 프랑스 십대 소녀가 말일성도 개척자가 된 방법

캐더린 라모니노 도르프,
그녀가 돈 오 도르프에게 한 이야기

깊은 수레 바퀴 자국을 남기면서, 포장 마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삐걱거리며 거칠은 자갈로 덮힌 오솔길을 지날 때 일으키는 그 포장 마차의 진동을 저는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파리에서 지낸 저의 십대 시절의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지만, 유달리 이 날 밤에 저는 몰몬 개척자들에 대한 텔레비전 기록 영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몰몬의 이주 여정과 애급에서 탈출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탈출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사함에 놀랐습니다. 몰몬 개척자들의 용기와 그들이 겪는 고통이 제 마음 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전에 몰몬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었지만 저는 그들에 대하여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인 저는 바쁜 생활에 마음을 다 빼앗겨 제 마음속에 느꼈던 그 온화한 감동을 잊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단지 지식으로 몰몬을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개척자들의 포장 마차 수레 바퀴의 선회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파리의 패션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가게에서 만난 미국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어를 좋아하게 되어 어린 저에게 영어를 공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름이 되면 저를 잉글랜드나 스코트랜드로 보내 영어를 하는 가정에 머물게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어머니가 저에게 미국 캠프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요셉 스미스가 태어난 버몬트 주 쇄론에서 캠프 고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도 주님이 다시 한 번 그 개척자의 수레 바퀴를 선회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그 곳에 있는 동안 요셉 스미스나 몰몬에 대하여 아무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후, 이번에는 그 수레 바퀴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다시 선회하였습니다. 저는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에서 미국 문화에 특별히 집중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사 논문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을 때, 저는 몰몬 개척자들에 대한 기록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도 교수에게 제가 그것에 대하여 논문을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르본느 대학교에서는 아무도 몰몬에 대하여 논문을 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지도 교수는 그 주제가 아마도 흥미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에게 몰몬교의 독특한 면을 주제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예비 조사를 한 후에, 저는 그 대학의 도서관에는 몰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몰몬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저는 파리 선교 본부의 위치를 알아내어 대담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노크에 응한 선교사에게 "몰몬에 대하여 저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너무나 놀라 말문이 막혀 "네, 네, 들어오십시오."라고 더듬거렸습니다.

위 왼쪽부터: 프랑스의 캐더린, 계보철을 점검함, 학문적 연구 조사를 추구함,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와 모임을 갖음; 침례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미래의 남편과 함께.
오른쪽: 솔트레이크시티의 데져렛 빌리지 파이오니어 파크에서 자원 봉사 안내자의 복장을 한 캐더린

선교부에서의 저의 연구 조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말일성도들이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집행되는 의식을 믿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의식에 대하여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더 그 주제를 채택하고 싶었습니다. 제 논문을 위하여 제가 결국 택한 제목은 심지어 그 교회의 오래된 회원들조차도 잠시 숨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계보와 몰몬 교회" 그래서 제가 파리 선교부에서 "계보 여성"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된 시점은 바로 제가 처음 선교부를 방문한 지 두 달 후였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는 미국인 프리랜서 사진가이자 작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그에게 저에 대하여 말했고 그래서 그는 교회 잡지를 위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저를 인터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저와 함께 이야기 한 후에, 그는 제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저는 그냥 호기심만 있을 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생각하고는, "당신의 교회에 대하여 유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부에 올 때마다 항상 평화스런 느낌을 느낍니다. 실제로 저를 다시 오게 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흥미가 단지 학문적인 호기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 달 후에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유명한 계보 시설을 방문하여 저의 논문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장례식 전날에 유타에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 편지를 교환했던 말일성도 여성과 함께 관 속의 고인에게 경의을 표하는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절망의 느낌이 없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때에 제가 파리에서 만났던 그 사진 작가가 솔트레이크로 돌아왔고 우리는 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논문의 교정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논문에서의 저의 논평이 처음에는 "몰몬들은… 믿는다" 로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믿는다." 라고 표현되면서 더욱 더 긍정적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에게 선교사와 토론을 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하면서 제가 이전에 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호기심에서 일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음성이 덜 단호했었기 때문에 그는 "손해볼 거 있어요?" 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글쎄요, 손해 볼 거 없죠.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삼 주 후에, 저는 침례를 받았고, 저의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서 제 자신이 개척자가 되었을 때 그 포장 마차의 바퀴가 다시 선회했습니다. 곧 저는 저의 조상들 중 많은 분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선택을 할 기회를 줄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지 일년 반 후에, 그 사진 작가와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저를 만났을 때, 프랑스 기록 영화가 보여 준 그 포장 마차의 수레 바퀴가 어떻게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간 지 150 주년을 기념하는 1997년이며,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포장 마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삐걱거리며 거친 자갈로 덮힌 오솔길을 지날 때 저는 실제로 그 포장 마차의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지만 저는 1997년 150주년 기념 몰몬 트레일 포장 마차 행렬의 일부로서 와이오밍 주 빅 샌디 크러싱 가까이에 있는 오래된 역사적인 개척자 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옛날의 여행을 재연하는 이 행사에서 저는 이탈리아에서 교회에 가입하여 1850년대에 시온으로 간 프랑스 출신의 실제로 있었던 개척자 소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소녀와 수많은 다른 개척자들이 오래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가 똑같은 먼지를 마시며 똑같은 소리를 들으며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제가 어린 소녀 시절에 프랑스에서 본 그 기록 영화를 기억하며, 이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 남았던 그리고 죽어갔던 많은 말일성도들의 넋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아 하고 있는 이 역할은 단지 과거의 우리의 개척자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개척자이기 때문입니다. □

성도의 벗
1997년 색인

본 색인은 주제 색인과 저자 색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제 색인

ㄱ

가르침

성공적인 말씀을 위한 계획, 대린 리스고, 4월호, 26쪽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의 주요 변경 사항, 2월호, 28쪽

새로운 교사들을 위한 자원, 패트리샤 피 피네가, 2월호, 28쪽

평범한 교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훌륭한 장소,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호, 11쪽

가정

"본이 되어",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44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교회의 여성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67쪽

나의 크리스마스 외투, 제릴 보일, 12월호, 19쪽

신권의 힘,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1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73쪽

가족 관계(결혼, 신권 참조)

"그녀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7월호, 35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감사, 제럴드 엘 테일러, 7월호, 33쪽

고향으로 선교 사업을 떠남, 스리 데비 코무, 5월호, 8쪽

모든 것을 잃고서, 11월호, 12쪽

어린이들의 영혼을 보살핌, 패트리샤 피 피네가, 7월호, 13쪽

영원한 가족,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64쪽

집으로의 여정, 제니퍼 갠트 앱셔, 4월호, 32쪽

하나님의 증인,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30쪽

제때 한 바느질, 페트리아 켈리, 8월호, 34쪽

간증(개심, 신앙 참조)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3월호, 7쪽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주심, 테리 린 바이트너, 5월호, 14쪽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83쪽

간증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3월호, 22쪽

그가 누구인지 알리라, 5월호, 25쪽

감사

가슴을 에이는 깊은 슬픔 속에서조차도, 스베인뷰르그 구드문드스도티르, 12월호, 44쪽

감사, 제럴드 엘 테일러, 7월호, 33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되어, 엘레인 엘 잭, 1월호, 91쪽

개심(신앙, 간증 참조)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디 헤일즈, 7월호, 80쪽

"하나님이 함께 계셔…", 디앤 워커, 4월호, 17쪽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 프란시스코 비냐스, 11월호, 78쪽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주심, 테리 린 바이트너, 5월호, 14쪽

개척자(교회사 참조)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85쪽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엠 러셀 밸라드, 7월호, 55쪽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매", 잭 에이치 고슬린드, 7월호, 39쪽

"참된 신앙",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65쪽

개척자, 루스 뮤어 가드너와 반자 와이 왓킨스, 3월호, 어린이란 12쪽

그들은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0쪽

그들을 평원에서 데려오십시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2쪽

나는 개척자, 캐더린 라모니노와 돈 오 도르프, 12월호, 46쪽

마을 사진사의 꿈, 넬슨 에드워드, 6월호, 16쪽

모두가 개척자,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93쪽

모든 발자취에서 신앙을 발견함, 모니 디 파킨, 7월호, 84쪽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로버트 엘 백맨, 2월호, 14쪽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엠 러셀 밸라드, 1월호 23쪽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장엄한 개척자 여행, 7월호, 58쪽

몽골에서 일고 있는 놀라운 변화, 매리 닐슨 쿡, 2월호, 10쪽

반 페니와 진주, 제리 브로우맨, 5월호, 28쪽

부름에 응함, 잭 에이치 고슬린드, 8월호, 10쪽

불굴의 매리 앤, 렉스 지 젠슨, 4월호, 20쪽

신앙의 유산, 알 발 손슨, 2월호, 32쪽

아, 개척자들이여! 최신 예술 증정품 전시, 5월호, 34쪽

안태스 산맥에서의 개척, 앨린 릿스터, 5월호, 40쪽

영의 권능으로 들음,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쪽

우리 앞에 영원이 있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18쪽

인내로 버티며 계속 걸어가십시오,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7월호, 86쪽

지뢰와 올가 스네데르플레르: 불굴의 개척자 부부, 집중 탐방기, 마빈 케이 가드너, 9월호, 15쪽

체코 성도들: 더욱 밝은 날, 카헐리 메르, 9월호, 10쪽

카보 베르디에 부는 복음 변화의 바람, 앤드류 클라크, 4월호, 34쪽

캄보디아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함, 리랜드 디 화이트와 조이스 비 화이트, 10월호, 40쪽

팔렌크에서 주님의 사업을 행함, 마빈 케이 가드너, 10월호, 34쪽

허니문 길, 데이비드 이 소렌슨, 10월호, 16쪽

현대의 개척자들, 재닛 헤일즈 베컴, 7월호, 91쪽

홍콩의 꿈이 실현되다, 켈린 릭스 애덤스, 3월호, 34쪽

게임

개척자 여행, 레베카 토드, 10월호, 어린이란 8쪽, 어린이란 16쪽

결혼(성약, 가족 관계 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기록한 협력 관계, 에스 마이클 윈콕스, 9월호, 8쪽

성약 결혼, 브루스 시 하펜, 1월호, 26쪽

허니문 길, 데이비드 이 소렌슨, 10월호, 16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73쪽

기다렸던 성전 결혼, 패트리샤 이 맥이니스, 4월호, 28쪽

겸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1월호 78쪽

경전 공부

어느 평범한 목요일에, 가브리엘 라로스, 5월호, 38쪽

세상 꼭대기에서, 윌리 홀드맨과 리차드 엠 롬니, 3월호, 10쪽

압박감에서 해방됨, 데레사 헌세이커, 11월호, 33쪽

계명(순종 참조)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조셉 비 워스린, 1월호, 70쪽

계시(성신, 예언자 참조)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엘 톰 페리, 7월호, 68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개인적인 계시: 은사, 시험 그리고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6월호, 8쪽

거룩한 부름, 몬트 제이 브러프, 7월호, 27쪽

예언의 영, 엘 엘든 포터, 1월호, 9쪽

인간의 것이 아닌 나의 음성으로, 엠 러셀 밸라드, 3월호, 46쪽

평범한 교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훌륭한 장소,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호, 11쪽
고결한 성품(성실)
보증 수표, 셀던 에프 차일드, 7월호 29쪽
경주, 토나 게머쉬, 6월호 어린이란 14쪽
고든 비 힝클리(—에 관한 기사)
예언자이신 나의 할아버지, 재닛 토마스에게 한 이야기, 10월호, 8쪽
고통(역경, 죄 참조)
교육
네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 9월호, 33쪽
교회 교육 기구
아이투타키의 십대들, 마조리 험프리스와 제넷 웨이트 베넷, 2월호, 46쪽
교회 모임
성공적인 말씀을 위한 계획, 대린 리스고, 4월호, 26쪽
안식일 기억 상자, 폴라 제이 루이스, 2월호 어린이란 13쪽
교회 부름
"감독님, 도와주세요!", 델린 에이치 옥스, 7월호, 22쪽
"하나의 작은 돌", 엘레인 엘 잭 7월호, 73쪽
거룩한 부름, 몬트 제이 브러프, 7월호, 27쪽
교회사(개척자 참조)
개척자, 루스 뮤어 가드너와 반자 와이 왓킨스, 3월호, 어린이란 12쪽
구모라의 보물, 셰리 존슨, 2월호, 어린이란 10쪽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함, 데일 에스 록스, 8월호, 20쪽
나부 성전, 셰리 존슨, 9월호, 어린이란 6쪽
나부의 십대 청소년: 헨리 샌더슨, 윌리엄 지 하틀리, 8월호, 16쪽
데저렛, 셰리 존슨, 12월호, 어린이란 10쪽
미주리 주에서의 박해, 셰리 존슨, 6월호, 어린이란 10쪽
성도들이 함께 모임, 셰리 존슨, 3월호, 어린이란 14쪽
아이오와를 지나감, 셰리 존슨, 10월호, 어린이란 13쪽
위대한 도시가 세워짐, 셰리 존슨, 8월호, 어린이란 2쪽
주님을 위한 집, 셰리 존슨, 5월호, 어린이란 14쪽
평원을 횡단함, 셰리 존슨, 11월호, 어린이란 2쪽
교회 조직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85쪽
"본이 되어",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44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상호부조회라는 중요한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94쪽
우리 모두 충실하고 참되게,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쪽
구원의 계획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닐 에이 맥스웰, 7월호, 11쪽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리차드 지 스코트, 7월호, 53쪽
짐을 나눠 가짐, 재닛 토마스, 5월호, 10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73쪽
금식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7월호, 75쪽
하나님의 증인,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30쪽
기도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델린 에이치 옥스, 1월호 59쪽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 엘 에드워드 브라운, 7월호, 78쪽
"룻을 도울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룻 해리스 스왜너, 5월호, 26쪽
나의 돌고래, 아이삭 파이멘틀과 엘리자벳 샘웨이즈 거트너에게 한 이야기, 10월호, 46쪽
버섯 따기, 올가 불가코바 페트렌코, 9월호, 어린이란 10쪽
신앙의 날개로, 비키 에이 그로버그, 3월호, 28쪽
연구와 기도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함, 캐런 애쉬튼, 6월호, 어린이란 8쪽
자주 기도함, 패트리샤 피 피네가, 3월호, 어린이란 2쪽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시간, 3월호 30쪽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1월호, 78쪽
하나님 하버지는 응답해 주심, 테리 린 바이트너, 5월호, 14쪽
기쁨(행복 참조)
기적(영적인 은사 참조)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매", 잭 에이치 고슬린드, 7월호, 39쪽

ㄴ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의 개척, 앨런 릿스터, 5월호, 40쪽
남성과 여성의 역할
거룩한 협력관계, 에스 마이클 윌콕스, 9월호, 8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73쪽
노래
개척자, 루스 뮤어 가드너와 반자 와이 왓킨스, 3월호, 어린이란 12쪽
내 사랑하는 아들, 반자 와이 왓킨스와 마빈 케이 가드너, 12월호, 어린이란 4쪽
신앙의 발자취로, 케이 뉴웰 데일리, 2월호, 22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캐런 애쉬튼, 진 피 롤러, 9월호, 어린이란 5쪽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6월호, 어린이란 5쪽
노르웨이
짐을 나눠 가짐, 재닛 토마스, 5월호, 10쪽

ㄷ

단합
영의 권능으로 들음,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쪽
십이사도,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6쪽
대관장단 메시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임즈 이 파우스트, 10월호, 2쪽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2쪽
"하나님이 그의 종 요셉을 통해 하신 일",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2쪽
간증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3월호, 2쪽
감사의 계절,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2쪽
그들을 평원에서 데려오십시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2쪽
눈물과 시련과 믿음과 간증, 토마스 에스 몬슨, 9월호, 2쪽
사망을 이긴 승리, 고든 비 힝클리, 4월호, 2쪽
신앙의 본보기,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2쪽
영감을 주는 말씀들, 고든 비 힝클리, 8월호, 2쪽
도덕(순결, 고결한 성품 참조)
독신 성인
독신 성인에게 주는 권고,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16쪽
교회의 여성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67쪽

ㄹ

로버트 디 헤일즈(—에 관한 기사)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9월호, 어린이란 6쪽
룩 크루틸(—에 관한 기사)
체코 공화국 프라하에 사는 룩 크루틸, 콜리스 클레이튼, 9월호, 어린이란 14쪽

ㅁ

메디아
훌륭한 텔레비전 시청 방법, 티사 엠 그로버, 5월호, 32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멕시코

팔렌크에서 주님의 사업을 함, 마빈 케이 가드너, 10월호, 34쪽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대린 리스고, 12월호, 16쪽
영웅과 여장부, 캐런 애쉬튼, 8월호, 어린이란 8쪽
현대의 개척자들, 새닛 헤일즈 베컴, 7월호, 91쪽

몰몬경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윌리암 롤프 카, 1월호 80쪽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로*", 카이 에이 앤더슨, 6월호, 28쪽
몰몬경을 함께 나눔, 빅터 카말고, 4월호, 31쪽

몰몬경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심, 8월호, 어린이란 14쪽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2월호, 어린이란 2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과 기도를 가르치심, 4월호, 어린이란 2쪽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하심, 6월호, 어린이란 2쪽
미대륙의 평화, 10월호, 어린이란 2쪽

몰몬 메시지

하늘의 관문, 11월호, 15쪽
단 한 번으로도 상처를 입습니다, 3월호, 33쪽
네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 9월호, 33쪽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

"*하나님이 함께 계셔…*", 디 앤 워커, 4월호, 17쪽

몽골

몽골에서 일고 있는 놀라운 변화, 매리 닐슨 쿡, 2월호, 10쪽

미덕(순결 참조)

ㅂ

방문 교육

"*룻을 도울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룻 해리스 스왜너, 5월호, 26쪽

방문 교육 메시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8월호, 25쪽
"*무엇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지는지 항상 기억하라*", 12월호, 25쪽
그가 누구인지 알리라, 5월호, 25쪽
믿는 것과 견디는 것, 3월호, 25쪽
순종을 통한 지혜, 6월호, 25쪽
영의 권세로 대화함, 10월호, 25쪽
예언의 은사, 9월호, 25쪽
지식의 말씀, 11월호, 25쪽
진리를 깨달음, 4월호, 25쪽
최선의 은사를 구함, 2월호, 24쪽

병고침(영적인 은사 참조)

영적인 상처를 치유함, 재닛 웨이트 베닛, 4월호, 8쪽
속죄, 러셀 엠 넬슨, 1월호, 33쪽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8월호, 25쪽

복지 프로그램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7월호, 75쪽

봉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7월호, 75쪽
거룩한 부름, 몬트 제이 브러프, 7월호, 27쪽
나탈리의 약속, 제이미 매콤버, 2월호, 어린이란 6쪽
맹인으로부터 배운 교훈, 로젤린 셀리스, 10월호, 38쪽
모두가 개척자,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93쪽
새로운 성탄절 전통, 너글라스 프레슨, 12월호, 8쪽
아우구스토 에이 림 장로, 2월호, 어린이란 4쪽
케빈의 생일 선물, 티모시 에스 와이트, 11월호, 어린이란 10쪽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통, 벨로이 리차즈, 12월호, 어린이란 14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11월호, 어린이란 6쪽
한 주 동안의 비밀, 제니퍼 젠슨, 4월호, 어린이란 4쪽

부모의 역할(가족 관계 참조)

"*그녀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7월호, 35쪽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에 따라*", 닐 에이 맥스웰, 1월호, 21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교회의 여성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67쪽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엠 러셀 밸라드, 1월호, 23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73쪽

부활(부활절, 예수 그리스도 참조)

부활절(속죄 참조)

부활절 이야기, 매리터 슈거, 4월호, 어린이란 8쪽
사망을 이긴 승리, 고든 비 힝클리, 4월호, 2쪽

브라질

브라질의 투토 뱀, 돈 엘 설과 레이비르 미첼, 11월호 34쪽

브리감 영(一에 관한 기사)

브리감 영: 타고난 열정, 로널드 케이 에스플린, 3월호, 18쪽

비난

영성을 위태롭게 하는 흠잡기, 마크 이 챔벌레인, 5월호, 16쪽

ㅅ

사도

십이사도,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6쪽

사랑

"*무엇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지는지 기억하라*", 12월호, 25쪽
"*우리는 최고를 보내려고 정성을 다합니다*", 라차드 시 에슬리, 1월호, 62쪽
과거의 상한 감정을 돌아보며, 수잔 터니에이, 6월호, 15쪽
그들을 평원에서 데려오십시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2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되어, 엘레인 엘 잭, 1월호, 91쪽
케빈의 생일 선물, 티모시 에스 와이트, 11월호, 어린이란 10쪽
하나님의 증인,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30쪽

사망(필멸 참조)

가슴을 에이는 깊은 슬픔 속에서조차도, 스베인부르그 구드문드스도티르, 12월호, 44쪽
소망 속에 살며, 지에꼬 엔 오까자끼, 1월호 89쪽
집으로의 여정, 제니퍼 갠트 앱서, 4월호, 32쪽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3월호, 16쪽; 6월호, 32쪽; 9월호, 26쪽; 10월호, 14쪽

상호부조회

"*영광에 참여하는 사*", 엘레인 엘 잭, 1월호, 76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하나의 작은 돌*", 엘레인 엘 잭, 7월호, 73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되어, 엘레인 엘 잭, 1월호, 91쪽
상호부조회라는 중요한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94쪽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의 주요 변경 사항, 돈 엘 설, 12월호, 26쪽
신앙으로 확인됨,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호, 87쪽

선교 사업

"*기쁨에 넘친 대면*", 주안 알도 레온, 2월호, 48쪽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디 헤일즈, 7월호, 80쪽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부*, 매리앤 마틴데일과 제니퍼 그랜트 애브셔, 9월호 44쪽
"*우리는 최고를 보내려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리차드 시 에즐리, 1월호, 62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참된 신앙",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65쪽
간증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3월호, 2쪽
고향으로 선교 사업을 떠남, 스리 데비 코무, 5월호, 8쪽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나탈리아 블라디미로브나 레오노바, 6월호, 26쪽
그것은 비밀이 아니에요—좋은 소식을 나눕시다! 마리사 위태커 험프리, 2월호, 44쪽
그들은 찾아올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44쪽
나는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니나 바자르스카야와 발레디 파커, 3월호, 44쪽
몰몬경을 함께 나눔, 빅터 카말고, 4월호, 31쪽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16쪽
부부 선교사: "훌륭한 자원", 데이비드 비 헤이트, 10월호 26쪽
신앙을 지킨 50년, 혼자 톰사, 6월호, 46쪽
신앙의 본보기,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2쪽
정직—도덕 나침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41쪽
코끼리의 돌격, 테리 레이드, 8월호, 46쪽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주심, 테리 린 바이트너, 5월호, 14쪽
하나님의 증인,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30쪽

선행(모범, 봉사 참조)

성신(계시, 영적인 은사 참조)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댈린 에이치 옥스, 1월호, 59쪽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윌리암 롤프 카, 1월호, 80쪽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엘톰 페리, 7월호, 68쪽
"영광에 참여하는 자", 엘레인 엘 잭, 1월호, 76쪽
"영은 살리는 것입이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2쪽
개인적인 계시: 은사, 시험, 그리고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6월호, 8쪽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조셉 비 워스린, 1월호, 70쪽
소음 바다 속에서, 젠스 젠슨과 폴 코너스, 3월호, 26쪽
십이사도,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6쪽
영을 통해서 얻은 용기, 거뱅거 오날라야, 5월호, 어린이란 6쪽
예언의 영, 엘 엘든 포터, 1월호, 9쪽
주님의 평안, 데니스 이 시먼즈, 7월호, 70쪽
평범한 교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훌륭한 장소,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 1월호, 11쪽
하나님의 증인,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30쪽

성약(침례, 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85쪽
"전리에 참 됨", 조셉 비 워스린, 7월호, 15쪽
보증 수표, 셀던 에프 차일드, 7월호, 29쪽
영원한 가족,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64쪽
저는 기억합니다, 리차드 엠 롬니, 8월호, 40쪽
참고 견디면 들어 올려 짐, 러셀 엠 넬슨, 7월호, 70쪽
하나님의 증인,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30쪽

성전 및 성전 사업(가족 역사, 결혼 참조)

성전 방문 여행, 줄리아 하멜, 2월호, 8쪽
하늘의 관문, 11월호, 15쪽
우리 앞에 영원이 있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18쪽
자이레에서 주님의 집으로, 쿠테카 카몰레트, 8월호, 8쪽
어느 평범한 목요일에, 가브리엘 라로스, 5월호, 38쪽
허니문 길, 데이비드 이 소렌슨, 10월호 16쪽
기다렸던 성전 결혼, 패트리샤 이 맥이니스, 4월호, 28쪽
예기치 못한 침례, 바트 엘 앤더슨, 10월호, 6쪽

성지(거룩한 땅)

성지의 평화, 디 켈리 옥든과 데이비드 비 갤브레이스, 12월호, 20쪽

성찬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댈린 에이치 옥스, 1월호, 59쪽
매주 일요일이 성탄절, 로이스 티 바틀러메이우, 12월호, 24쪽
영적인 상처를 치유함, 재닛 웨이트 베닛, 4월호, 8쪽

성탄절

감사의 계절,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쪽
공예품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그림, 엠 에이치 마틴, 12월호, 어린이란 13쪽
나의 성탄절 외투, 체릴 보일, 12월호, 19쪽
매주 일요일이 성탄절, 로이스 티 바틀러메이우, 12월호, 24쪽
사랑의 선물을 줌,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12월호, 어린이란 2쪽
새로운 성탄절 전통, 더글러스 프레즌 크리스마스 벌, 레베카 토드, 12월호, 어린이란 6쪽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통, 벨로이 리차즈, 12월호, 어린이란 14쪽

소망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에 따라", 닐 에이 맥스웰, 1월호, 21쪽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엠 러셀 밸라드, 1월호, 23쪽

소망

소망 속에 살며, 지에꼬 엔 오까자끼, 1월호, 89쪽

속죄(예수 그리스도, 회개 참조)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윌리암 롤프 카, 1월호, 80쪽
"어자어 어찌하여 우느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52쪽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조셉 비 워스린, 1월호, 70쪽
기뻐하라, 웬틴 엘 쿡, 1월호, 28쪽
깨끗하게 씻겼노라, 보이드 케이 패커, 7월호, 9쪽
매주 일요일이 성탄절, 로이스 티 바틀러메이우, 12월호, 24쪽
소망 속에 살며, 지에꼬 엔 오까자끼, 1월호, 89쪽
속죄, 러셀 엠 넬슨, 1월호, 33쪽
영원한 가족,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64쪽
영적인 상처를 치유함, 재닛 웨이트 베닛, 4월호, 8쪽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브루스 시 하펜 장로, 4월호, 38쪽

순결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리차드 지 스코트, 9월호, 28쪽

순종(계명 참조)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82쪽
귄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24쪽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월호, 37쪽
순종으로 얻는 평안, 렉스 디 피네가, 4월호, 어린이란 7쪽
영원한 가족,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64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캐런 애쉬튼, 9월호, 어린이란 8쪽

스네데르플레르, 지리와 올가

지리와 올가 스네데르플레르: 불굴의 개척자 부부 집중 탐방기, 마빈 케이 가드너, 9월호, 15쪽

시련(역경 참조)

신권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엘 톰 페리, 1월호, 36쪽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매", 잭 에이치 고슬린드, 7월호, 39쪽

거룩한 협력 관계, 에스 마이클 윌콕스, 9월호 8쪽
구세주는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조 제이 크리스턴슨, 1월호, 39쪽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월호, 37쪽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16쪽
신권의 권세는 실재합니다, 피터 토마트, 6월호, 44쪽
신권의 힘,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1쪽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의 주요 변경 사항, 돈 엘 설, 12월호, 26쪽
정직—도덕 나침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41쪽

신성 모독

어떻게 하면 욕설이 생각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2월호, 25쪽

신앙(개심, 간증 참조)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엠 러셀 밸라드, 7월호, 55쪽
"진리에 참됨", 조셉 비 워스린, 7월호, 15쪽
"참된 신앙",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65쪽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24쪽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조셉 비 워스린, 1월호, 70쪽
나의 돌고래, 아이삭 파이멘틀과 엘리자벳 샘웨이즈 거트너, 10월호, 46쪽
눈물과 시련과 믿음과 간증, 토마스 에스 몬슨, 9월호, 2쪽
모든 발자취에서 신앙을 발견함, 보니 디 파킨, 7월호, 84쪽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로버트 엘 백맨, 2월호, 14쪽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엠 러셀 밸라드, 1월호, 23쪽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장엄한 개척자 여행, 7월호, 58쪽
믿는 것과 견디는 것, 3월호, 25쪽
신앙으로 확인됨,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호 87쪽
신앙을 지킨 50년, 혼자 톰사, 6월호, 46쪽
신앙의 날개로, 비키 에이 그로버그, 3월호, 28쪽
예언의 영, 엘 엘든 포터, 1월호, 9쪽
자이레에서 주님의 집으로, 루테카 카물레트, 8월호, 8쪽
현대의 개척자들, 재닛 헤일즈 베컴, 7월호, 44쪽

신체 장애

예기치 못한 침례, 바트 엘 앤더슨, 10월호, 6쪽
맹인으로부터 배운 교훈, 로젤린 셀리스, 10월호 38쪽

신학 연구원 대학부(교회 교육 기구 참조)

신학 연구원 중등부(교회 교육기구 참조)

심심풀이

2월호, 어린이란 9쪽
4월호, 어린이란 12쪽
5월호, 어린이란 13쪽
6월호, 어린이란 13쪽
8월호, 어린이란 7쪽
9월호, 어린이란 13쪽
11월호, 어린이란 5쪽
12월호, 어린이란 12쪽

십일조(헌물 참조)

"본이 되어",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44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ㅇ

아랍

성지의 평화, 디 켈리 옥든과 데이비드 비 갤브레이스, 12월호, 20쪽

아버지의 역할(부모의 역할 참조)

아우구스토 에이 림(—에 관한 기사)

아우구스토 에이 림 장로, 2월호, 어린이란 4쪽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개척담 계속, 디앤 워커 6월호, 34쪽

안데스

안데스 산맥에서의 개척, 앨런 릿스터, 5월호 40쪽

안식일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의 주요 변경 사항, 돈 엘 설, 12월호, 26쪽
안식일 기억 상자, 폴라 제이 루이스, 2월호, 어린이란 13쪽

앤더슨, 조지 에드워드

마을 사진사의 꿈, 넬슨 에드워드, 6월호, 16쪽

어린 아이(가족 관계 참조)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윌리암 룰프 카, 1월호, 80쪽
어린이들의 영혼을 보살핌, 패트리샤 피 피네가, 7월호, 13쪽

어린 친구를 위해

옳은 일을 선택하라, 콜리스 클레이튼, 3월호, 어린이란 10쪽
크리스마스 별, 레베카 토드, 12월호, 어린이란 6
느낌, 팻 그레이엄, 4월호, 어린이란 16쪽

어머니의 역할(부모의 역할 참조)

여성

신앙으로 확인됨,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스, 1월호, 87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되어, 엘레인 엘 잭, 1월호, 91쪽
상호부조회라는 중요한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94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73쪽
교회의 여성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67쪽

역경

모든 것을 잃고서, 11월호, 12쪽
시련의 목적, 에디마 보텔로 수퍼티, 2월호, 30쪽
성약 결혼, 브루스 시 하펜, 1월호, 26쪽
가슴을 에이는 깊은 슬픔 속에서조차도, 스베인부르크 구드문드스도티르, 12월호, 44쪽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닐 에이 맥스웰, 7월호, 11쪽
주님의 평안, 데니스 이 시먼즈, 7월호, 31쪽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85쪽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82쪽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52쪽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엠 러셀 밸라드, 7월호, 55쪽

연민(사랑 참조)

영생

참고 견디면 들어 올려짐, 러셀 엠 넬슨, 7월호, 70쪽
우리 앞에 영원이 있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18쪽

영원한 가족(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영원한 관점

우리 앞에 영원이 있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18쪽

영적인 은사(병고침, 성신, 예언 참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8월호, 25쪽
"무엇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지는지 항상 기억하라", 12월호, 25쪽
그가 누구인지 알리라, 5월호, 25쪽
믿는 것과 견디는 것, 3월호, 25쪽
순종을 통한 지혜, 6월호, 25쪽
영의 권세로 대화함, 10월호, 25쪽
예언의 은사, 9월호, 25쪽
지식의 말씀, 11월호, 25쪽
진리를 깨달음, 4월호, 25쪽
최선의 은사를 구함, 2월호, 24쪽

예수 그리스도(속죄 참조)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댈린 에이치 옥스, 1월호, 59쪽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3월호, 7쪽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닐 에이 맥스웰, 7월호, 11쪽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52쪽
"우리는 최고를 보내려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리차드 시 에즐리, 1월호, 62쪽
감사, 제럴드 엘 테일러, 7월호, 33쪽
감사의 계절,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쪽
구세주는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조 제이 크리스턴슨, 1월호, 39쪽
그들은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0쪽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 알렉 산드라 헤르난데스, 7월호, 90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되어, 엘레인 엘 잭, 1월호, 91쪽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조셉 비 워스린, 1월호, 70쪽
기뻐하라, 웬틴 엘 쿡, 1월호, 28쪽
당신은 그분의 친구입니까? 마이클 그리피스, 11월호, 10쪽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16쪽
빛이요 생명이라, 댈린 에이치 옥스, 12월호, 40쪽
사망을 이긴 승리, 고든 비 힝클리, 4월호, 2쪽
상호부조회라는 중요한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94쪽
성약 결혼, 브루스 시 하펜, 1월호, 26쪽
소망 속에 살며, 지에꼬 엔 오까자끼, 1월호, 89쪽
속죄, 러셀 엠 넬슨, 1월호, 33쪽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대린 리스고, 12월호, 16쪽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82쪽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 12월호, 10쪽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1월호, 78쪽
평범한 교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훌륭한 장소,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호, 11쪽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브루스 시 하펜, 4월호, 38쪽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필요한 일을 행함, 10월호, 어린이란 6쪽
제시카와 몰몬경과 로 형제, 레레인 화이티어, 8월호, 어린이란 4쪽

예술

제때 한 바느질, 페트리아 켈리, 8월호, 32쪽
요셉 형제에게 바치는 찬사, 12월호, 33쪽
마을 사진사의 꿈, 넬슨 에드워드, 6월호, 16쪽
아, 개척자들이여! 최신 예술 증정품 전시, 5월호, 34쪽
개척자, 1월호, 어린이란 14쪽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베스 데일리, 8월호, 48쪽

예언(성신의 은사 참조)

예언의 은사, 9월호, 25쪽
예언의 영, 엘 앨든 포터, 1월호, 9쪽

예언자(예언, 계시 참조)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감사, 제럴드 엘 테일러, 7월호 33쪽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24쪽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함, 데일 에스 콕스, 8월호, 20쪽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엠 러셀 밸라드, 1월호, 23쪽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16쪽
예언자는 영감을 받음, 데이비드 비 헤이트, 1월호, 14쪽
예언자이신 나의 할아버지, 재닛 토마스에게 한 이야기, 10월호, 8쪽

요셉 스미스(교회사, 첫번째 시현, 회복 참조)

"본이 되어",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44쪽
"오 사랑스러운 아침!":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와 첫번째 시현, 칼로스 이 에이시, 4월호, 10쪽
"하나님이 그의 종 요셉을 통해 하신 일!",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2쪽
감사의 계절,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쪽
구모라의 보물, 셰리 존슨, 2월호, 어린이란 10쪽
그들은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0쪽
요셉 형제에게 바치는 찬사, 12월호, 33쪽
인간의 것이 아닌 나의 음성으로, 엠 러셀 밸라드, 3월호, 46쪽

용기

모든 발자취에서 신앙을 발견함, 보니 디 파킨, 7월호, 84쪽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임즈 이 파우스트, 10월호, 2쪽
요셉 스미스—하나님의 용감한 종, 캐런 애쉬튼, 10월호, 어린이란 4쪽
영을 통해서 얻은 용기, 거뱅거 오날라야, 5월호, 어린이란 6쪽

용서

과거의 상한 감정을 돌아보며, 수잔 터니에이, 6월호, 15쪽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82쪽

우정

아저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마이클 그리피스, 11월호, 10쪽
함께 있는 친구, 크리스틴 배너, 7월호, 88쪽
짐을 나눠 가짐, 재닛 토마스, 5월호, 10쪽

우정 증진(재활동 촉진 참조)

새로운 와드에 적응하기, 조앤 독시, 11월호, 46쪽
개종자와 청남,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7쪽
그들은 찾아올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44쪽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하라", 로버트 디 헤일즈, 7월호, 80쪽
다시 나를 반겨 줄까?, 아울레리아 에스 디어존, 5월호, 21쪽

유대인

성지의 평화, 디 켈리 옥든과 데이비드 비 캘브레이스 , 12월호, 20쪽

유혹

부름에 응함, 잭 에이치 고슬린드, 8월호, 10쪽
구세주는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조 제이 크리스턴슨, 1월호 39쪽

의사 소통

영의 권세로 대화함, 10월호, 25쪽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 엘 에드워드 브라운, 1월호, 78쪽

의식(성약 참조)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리차드 지 스코트, 7월호, 53쪽
신권의 권세는 실제합니다, 피터 토마트, 6월호, 44쪽

이야기

경주, 도너 게머쉬, 6월호, 어린이란 14쪽
나탈리의 약속, 제이미 매콤버, 2월호, 어린이란 6쪽
버섯 따기, 올가 불가코바 페트렌코, 9월호, 어린이란 10쪽
새로운 날의 시작, 레이 골드럽, 5월호, 어린이란 10쪽
자전거가 준 교훈, 앨마 제이 예이츠, 8월호, 어린이란 10쪽
한 주 동안의 비밀, 제니퍼 젠슨, 4월호, 어린이란 4쪽
해롤드의 목록, 다이앤 엘 멩검, 3월호, 어린이란 4쪽

인내(순종 참조)

땅콩 경주, 로잘리 에이 사이페트, 10월호, 어린이란 10쪽
믿는 것과 견디는 것, 3월호, 25쪽
인내로 버티며 계속 걸어가십시오,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7월호, 86쪽

참고 견디면 들어 올려짐, 러셀 엠 넬슨, 7월호, 70쪽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요기야 카르타에 사는 크리스천 네피와 에르나와티 스하르토, 마일즈 티 튜아손, 6월호 어린이란 6쪽

ㅈ

자립

자립, 로라딘 린지, 10월호, 22쪽

자유의지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에 따라", 닐 에이 맥스웰, 1월호, 21쪽

의로운 선택, 포노 라바타이, 7월호, 89쪽

옳은 일을 선택하라, 콜리스 클레이튼, 3월호, 어린이란 10쪽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 알렉산드라 헤르단데스, 5월호, 90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9월호, 어린이란 6쪽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지요, 캐런 애쉬튼, 3월호, 어린이란 8쪽

소망 속에 살며, 지에꼬 엔 오까자끼, 1월호, 89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재활동 촉진(우정 증진 참조)

시련의 목적, 에디마 보텔로 수퍼티, 2월호, 30쪽

우리로 돌아옴, 8월호, 26쪽

그들은 찾아올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44쪽

다시 나를 반격 줄까? 아울레리아 에스 디어존, 5월호, 21쪽

전세계적인 교회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부, 매리앤 마틴데일과 제니퍼 그랜트 애브셔, 9월호, 44쪽

우리 모두 충실하고 참되게,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쪽

젊은 매리 앤(—에 관한 기사)

불굴의 매리 앤, 렉스 지 젠슨, 4월호, 20쪽

정직(고결한 성품 참조)

자전거가 준 교훈, 엘마 제이 예이츠, 8월호, 어린이란 10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11월호, 어린이란 6쪽

정직하게 거래함, 앨런 보이 펑크, 11월호, 28쪽

경주, 도너 게머쉬, 6월호, 어린이란 14쪽

제프리 알 홀런드(—에 관한 기사)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5월호, 어린이란 2쪽

존 보로우맨(—에 관한 기사)

반 페니와 존주, 제리 보로우맨, 5월호, 28쪽

죄(회개 참조)

단 한 번으로도 상처를 입습니다, 3월호, 33쪽

준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8월호, 32쪽

지도력

모두가 개척자,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93쪽

교회의 여성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67쪽

지도자에 대한 지지

"감독님 도와주세요!", 댈린 에이치 옥스, 7월호, 22쪽

신권의 힘,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1쪽

지식(진리 참조)

지혜의 말씀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엘 톰 페리, 1월호, 36쪽

코끼리의 돌격, 테리 레이드, 8월호, 46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진리

"본이 되어",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44쪽

정직—도덕 나침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41쪽

진리를 깨달음, 4월호, 25쪽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욕설이 생각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2월호 25쪽

저는 교회 회원인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5월호, 22쪽

ㅊ

찬송가(노래 참조)

창조

들종다리새, 알 반 존슨, 6월호, 42쪽

속죄, 러셀 엠 넬슨, 1월호, 33쪽

책임(청지기 직분 참조)

아우구스토 에이 림 장로, 2월호 어린이란 4쪽

나탈리의 약속, 제이미 매콤버, 2월호, 어린이란 6쪽

첫번째 시현(요셉 스미스 참조)

"오 사랑스러운 아침!":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와 첫번째 시현,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 4월호, 10쪽

예언의 영, 엘 앨든 포터, 1월호, 9쪽

내 사랑하는 아들, 반자 와이 왓킨스와 마빈 케이 가드너, 12월호, 어린이란 4쪽

"우리는 최고를 보내려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리차드 시 에즐리, 1월호, 62쪽

청남

부름에 응함, 잭 에이치 고슬린드, 8월호, 10쪽

개종자와 청남,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7쪽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쪽, 37쪽

청녀

현대의 개척자들, 재닛 헤일즈 베컴, 7월호, 91쪽

청소년

네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 9월호, 33쪽

신앙의 본보기,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2쪽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85쪽

구세주는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조 제이 크리스틴슨, 1월호, 39쪽

청지기 직분(책임 참조)

"감독님 도와주세요!", 댈린 에이치 옥스, 7월호, 22쪽

들종다리새, 알 반 존슨, 6월호, 42쪽

"진리에 참됨", 조셉 비 워스린, 7월호, 15쪽

체코 공화국

신앙을 지킨 50년, 혼자 톰사, 6월호, 46쪽

지리와 올가 스네데르플레르: 불굴의 개척자 부부, 집중 탐방기, 마빈 케이 가드너, 9월호, 15쪽

체코 공화국, 프라하에 사는, 룩 크루팁, 콜리스 클레이튼, 9월호, 어린이란 14쪽

체코 성도들: 더욱 밝은 날, 카힐리 매르, 9월호, 10쪽

초등협회

나의 복음 표준, 캐런 애쉬튼, 2월호, 어린이란 14쪽

새로운 교사들을 위한 자원, 패트리샤 피 피네가, 2월호, 28쪽

축복사의 축복

축복사의 축복을 받던 날, 발레리아 살레르노, 10월호, 20쪽

친구가 친구에게

아우구스토 에이 림 장로, 2월호, 어린이란 4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5월호, 어린이란 2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9월호, 어린이란 6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11월호, 어린이란 6쪽

친구 사귀기

예루살렘의 댄 볼, 제이미 맥콤버, 4월호, 어린이란 13쪽

인도네시아 요기야 카르타에 사는 크리스천 네피와 에르나와티 수하르토 마일즈 티 튜아손, 6월호, 어린이란 6쪽

체코 공화국, 프라하에 사는 룩 크루팁, 콜리스 클레이튼, 9월호, 어린이란 14쪽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우리 모두 충실하고 참되게,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쪽

침례(성약 참조)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댈린 에이치 옥스, 1월호, 59쪽

"영광에 참여하는 자" 엘레인 엘 잭, 1월호, 76쪽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조셉 비 워스린, 1월호, 70쪽

새로운 날의 시작, 레이 골드럽, 5월호, 어린이란 10쪽

속죄, 러셀 엠 넬슨, 1월호, 33쪽
작은 계단 몇 개 내려가면 큰 발전이 있지요, 5월호, 어린이란 8쪽
침례—나의 첫 번째 성약, 캐런 애쉬튼, 5월호, 어린이란 4쪽
하나님의 증인,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30쪽

ㅋ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에 부는 복음 변화의 바람, 4월호, 34쪽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함, 리랜드 디 화이트와 조이스 비 화이트, 10월호, 40쪽
쿡 제도
아이투타키의 십대들, 마조리 험프리스와 제넷 웨이트 베넷, 2월호, 46쪽
퀘백
저는 기억합니다, 리차드 엠 롬니, 8월호, 40쪽

ㅌ

탐험
구모라의 보물, 셰리 존슨, 2월호, 어린이란 10쪽
나부 성전, 셰리 존슨, 9월호, 어린이란 2쪽
데져렛, 셰리 존슨, 12월호, 어린이란 10쪽
미주리 주에서의 박해, 셰리 존슨, 6월호, 어린이란, 10쪽
성도들이 함께 모임, 셰리 존슨, 3월호, 어린이란 14쪽
아이오아를 지나감, 셰리 존슨, 10월호, 어린이란 13쪽
위대한 도시가 세워짐, 셰리 존슨, 8월호, 어린이란 2쪽
주님을 위한 집, 셰리 존슨, 5월호, 어린이란 14쪽
평원을 횡단함, 셰리 존슨, 11월호, 어린이란 2쪽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대린 리스고, 12월호, 16쪽
해롤드의 목록, 다이앤 엘 맹검, 3월호, 어린이란 4쪽
텔레비전(메디아 참조)
템플 스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부, 매리앤 마틴데일과 제니퍼 그랜트 애브셔, 9월호, 44쪽
템플 스퀘어, 9월호, 34쪽
토마스 에스 몬슨(—에 관한 기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11월호, 어린이란 6쪽

ㅍ

평의회
우리로 돌아옴, 8월호, 26쪽
상호부조회라는 중요한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94쪽
평화(성신 참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임즈 이 파우스트, 10월호, 2쪽
주님의 평안, 데니스 이 시먼즈, 7월호, 31쪽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82쪽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52쪽
필멸(사망 참조)
속죄, 러셀 엠 넬슨, 1월호, 33쪽

ㅎ

하나님(하나님 아버지 참조)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에 따라", 닐 에이 맥스웰, 1월호, 21쪽
신앙으로 확인됨,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호, 87쪽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의 영혼을 보살핌, 패트리샤 피 피네가, 7월호, 13쪽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 엘 에드워드 브라운, 7월호, 78쪽
학대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8쪽
교회의 여성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67쪽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하겠다, 캐런 애쉬튼, 11월호, 어린이란 8쪽
나의 복음 표준, 캐런 애쉬튼, 2월호, 어린이란 14쪽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지요, 캐런 애쉬튼, 3월호, 어린이란 8쪽
연구와 기도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함, 캐런 애쉬튼, 6월호, 어린이란 8쪽
영웅과 여장부, 캐런 애쉬튼, 8월호, 어린이란 8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캐런 애쉬튼, 9월호, 어린이란 8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예언자들이 간증함, 캐런 애쉬튼, 12월호, 어린이란 8쪽
요셉 스미스—하나님의 용감한 종, 캐런 애쉬튼, 10월호, 어린이란 4쪽
침례—나의 첫번째 성약, 캐런 애쉬튼, 5월호, 어린이란 4쪽
회개—잘못을 옳은 것으로 바꿈, 캐런 애쉬튼, 4월호, 어린이란 10쪽
합당성(죄 참조)
소음 바다 속에서, 젠스 젠슨과 폴 코너스, 3월호, 26쪽
행동
깨끗하게 씻겼노라, 보이드 케이 패커, 7월호 9쪽
행복
개종자와 청남,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7쪽
저는 교회 회원인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5월호, 22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73쪽
헌납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베스 데일리, 8월호, 48쪽
헌물(헌납, 희생, 십일조 참조)
"하나님의 작은 돌", 엘레인 엘 잭, 7월호, 73쪽
헨리 샌더슨(—에 관한 기사)
나부의 십대 청소년: 헨리 샌더슨, 윌리엄 지 하틀리, 8월호, 16쪽함께 나누는 시간
홍콩
홍콩의 꿈이 실현되다, 켈린 릭스 애덤스, 3월호, 34쪽
회개(속죄, 죄 참조)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댈린 에이치 옥스, 1월호, 59쪽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52쪽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82쪽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조셉 비 워스린, 1월호, 70쪽
깨끗하게 씻겼노라, 보이드 케이 패커, 7월호, 9쪽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우로 프로페르지, 8월호 32쪽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리차드 지 스코트, 9월호, 28쪽
회개—잘못을 옳은 것으로 바꿈, 캐런 애쉬튼, 4월호, 어린이란 10쪽
회복(첫번째 시현 참조)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엘 톰 페리, 7월호, 68쪽
"우리는 최고를 보내려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리차드 시 에즐리, 1월호, 62쪽
"하나님이 그의 종 요셉을 통해 하신 일!",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2쪽
십이사도,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6쪽
희생(헌물 참조)
부름에 응함, 잭 에이치 고슬린드, 8월호, 10쪽
허니문 길, 데이비드 이 소렌슨, 10월호, 16쪽

저자별 색인

ㄱ

가드너, 루스 무어
개척자, 3월호, 어린이란 12쪽

가드너, 마빈 케이
펜덴크에서 주님의 사업을 함, 10월호, 34쪽
지리와 올기 스네데르플레르: 블굴의 개척자 부부 집중 탐방기, 9월호, 15쪽

갤브레이스, 데이비드 비
성지의 평화, 12월호, 20쪽

거트너, 엘리자벳 샘웨이즈
나의 돌고래, 10월호, 46쪽

게머쉬, 도너
경주, 6월호, 어린이란 14쪽

고슬린드, 잭 에이치
부름에 응함, 8월호, 10쪽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매", 7월호, 39쪽

골드럽, 레어
새로운 날의 시작, 5월호, 어린이란 10쪽

구드문드스도티르, 스베인부르그
가슴을 에이는 깊은 슬픔 속에서조차도, 12월호 44쪽

그레이엄, 펫
느낌, 4월호, 어린이란 10쪽

그로버, 리사 엠
훌륭한 텔레비전 시청 방법, 5월호, 32쪽

그로버그, 비키 에이
신앙의 날개로, 3월호, 28쪽

그리피스, 마이클
아저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ㄴ

넬슨, 러셀 엠
참고 견디면 들어올려짐, 7월호, 70쪽
속죄, 1월호, 33쪽

ㄷ

데일리, 베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8월호, 48쪽

데일리, 케이 뉴웰
신앙의 발자취로, 2월호 22쪽

도르프, 돈 오
나는 개척자, 12월호, 46쪽

도르프, 캐더린 라모니노
나는 개척자, 12월호, 46쪽

독시, 조엔
새로운 와드에 적응하기, 11월호, 26쪽

디어존, 아우렐리아 에스
다시 나를 반겨 줄까?, 5월호, 21쪽

ㄹ

라로스, 가브리엘
어느 평범한 목요일에, 5월호, 38쪽

라바타이, 푸노
의로운 선택, 7월호, 89쪽

레오노바, 나탈리아 블라디미로브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해 할 수 있었다, 6월호, 26쪽

레온, 주안 알도
"기쁨에 넘친 대면", 2월호, 48쪽

레이드, 테리
코끼리의 돌격, 8월호, 46쪽

로신카르스도티르, 마리아
나의 꿈이 실현됨, 6월호, 40쪽

로울러, 진 피
예수님 침례 받을 때, 9월호, 어린이란 5쪽

롬니, 리차드 엠
저는 기억합니다, 8월호, 40쪽
세상 꼭대기에서, 3월호, 10쪽

루이스, 폴라 제이
안식일 기억 상자, 2월호, 어린이란 13쪽

리스고, 대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2월호, 16쪽
성공적인 말씀을 위한 계획, 4월호, 26쪽

리차즈, 벨로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통, 12월호, 어린이란 14쪽

린지, 로라딘
자립, 10월호, 22쪽

릿스터, 앨런
안데스 산맥에서의 개척, 5월호, 40쪽

ㅁ

마틴, 엠 에이치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그림, 12월호, 어린이란 13쪽

마틴데일, 매리앤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부, 9월호, 44쪽

맥스웰, 닐 에이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에 따라", 1월호 21쪽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7월호, 11쪽

맥어니스, 패트리샤 이
기다렸던 성전 결혼, 4월호, 28쪽

맥콤버, 제이미
예루살렘의 댄 불, 4월호, 어린이란 13쪽
나탈리의 약속, 2월호, 어린이란 6쪽

맹검, 다이앤 엘
해롤드의 목록, 3월호, 어린이란 4쪽
메르 카힐리체코 성도들: 더욱 밝은 날, 9월호, 10쪽

몬슨, 토마스 에스
"본이 되어", 1월호, 44쪽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6월호, 2쪽
그들은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7월호, 50쪽
그들은 찾아올 것이다, 7월호, 44쪽
눈물과 시련과 믿음과 간증, 9월호, 2쪽
모두가 개척자, 7월호, 93쪽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 1월호, 16쪽
신앙의 본보기, 5월호 2쪽

미첼, 데이비드
브라질의 투도 벰, 11월호, 34쪽

ㅂ

바이드너, 테리 린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주심, 5월호, 14쪽

바자르스카야, 니나
나는 신앙에 관해 이야기 하였다, 3월호, 44쪽

바틀러메이우, 로이스 티
매주 일요일의 성탄절, 12월호, 24쪽

배너, 크리스틴
함께 있는 친구, 7월호, 88쪽

백맨, 로버트 엘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2월호, 14쪽

밸라드, 엠 러셀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1월호, 23쪽
인간의 것이 아닌 나의 음성으로, 3월호, 46쪽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7월호, 55쪽

버튼, 에이치 데이비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7월호, 75쪽

베넷, 제닛 웨이트
아이투타키의 십대들, 2월호, 46쪽
영적인 상처를 치유함, 4월호, 8쪽

베컴, 재닛 헤일즈
현대의 개척자들, 7월호, 91쪽

보로우맨, 제리
반 페니와 진주, 5월호, 28쪽

보일, 체릴
나의 성타절 외투, 12월호, 19쪽

블가코바 페트렌코, 올가
버섯 따기, 9월호, 어린이란 10쪽

브라운, 엘 에드워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 7월호, 78쪽

브러프, 몬트 제이

거룩한 부름, 7월호, 27쪽

비냐스, 프란시스코 제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 1월호, 78쪽

ㅅ

사이퍼트, 로잘린 에이

땅콩 경주, 10월호, 어린이란 10쪽

살레르노, 발레리아

축복사의 축복을 받던 날, 10월호, 20쪽

설, 돈 엘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의 주요 변경 사항, 12월호, 26쪽

브라질의 투도 뱀, 11월호, 34쪽

셀리스, 로젤린

맹인으로부터 배운 교훈, 10월호, 38쪽

소렌슨, 데이비드 이

허니문 길, 10월호, 16쪽

수퍼티, 에디마 보텔로

시련의 목적, 2월호, 30쪽

슈크, 매리터

부활절 이야기, 4월호, 어린이란 8쪽

스왜너, 룻 해리스

"룻을 도울 수 있게 저를 도와 주세요", 5월호, 26쪽

스코트, 리차드 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7월호, 53쪽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9월호, 28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1월호, 73쪽

시먼즈, 데니스 이

주님의 평안, 7월호, 31쪽

ㅇ

아이어링, 헨리 비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7월호, 24쪽

하나님의 증인, 1월호, 30쪽

애덤스, 켈린 릭스

홍콩의 꿈이 실현되다, 3월호, 34쪽

애브셔, 제니퍼 그랜트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부, 9월호, 44쪽

집으로의 여정, 4월호, 32쪽

앤더슨, 바트 엘

예기치 못한 침례, 10월호, 6쪽

앤더슨, 카이 에이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로", 6월호, 28쪽

에드워드 넬슨

마을 사진사의 꿈, 6월호, 16쪽

에스플린, 로널드 케이

브리감 영: 타고난 열정, 3월호, 18쪽

에이시, 칼로스 이

"오 사랑스러운 아침!":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와 첫번째 시현, 4월호, 10쪽

에즐리, 라차드 시

"우리는 최고를 보내려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1월호, 62쪽

에이츠, 앨마 제이

자전거가 준 교훈, 8월호, 어린이란 10쪽

오까자끼, 지에꼬 엔

소망 속에 살며, 1월호, 89쪽

오날라야, 거뱅거

영을 통해서 얻은 용기, 5월호, 어린이란, 6쪽

옥든, 디 켈리

성지의 평화, 12월호, 20쪽

옥스, 델린 에이치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1월호, 59쪽

"감독님 도와주세요!", 7월호, 22쪽

빛이요 생명이라, 12월호, 40쪽

와이트, 티모시 에스

케빈의 생일 선물, 11월호, 어린이란 10쪽

왓킨스, 반자 와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12월호, 어린이란 4쪽

개척자, 3월호, 어린이란 12쪽

워스린, 조셉 비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1월호, 70쪽

"진리에 참됨", 7월호, 15쪽

워커, 디앤

"하나님이 함께 계셔…", 4월호, 17쪽

아이슬란드—개척담 계속, 6월호 34쪽

나의 꿈이 실현됨, 6월호, 40쪽

윌콕스, 에스 마이클

거룩한 협력 관계, 9월호, 8쪽

ㅈ

잭, 엘레인 엘

"하나의 작은 돌", 7월호, 73쪽

"영광에 참여하는 자", 1월호, 76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되어, 1월호, 91쪽

젠슨, 렉스 지

불굴의 매리 앤, 4월호, 20쪽

젠슨, 제니퍼

한 주 동안의 비밀, 4월호, 어린이란 4쪽

젠슨, 젠스

소음 바다 속에서, 3월호, 26쪽

존슨, 셰리

구모라의 보물, 2월호, 어린이란 10쪽

나부 성전, 9월호, 어린이란 2쪽

데져렛, 12월호, 어린이란 10쪽

미주리 주에서의 박해, 6월호, 어린이란 10쪽

성도들이 함께 모임, 3월호, 어린이란 14쪽

아이오와를 지나감, 10월호, 어린이란 13쪽

위대한 도시가 세워짐, 8월호, 어린이란 2쪽

주님을 위한 집, 5월호, 어린이란 14쪽

평원을 횡단 함, 11월호, 어린이란 2쪽

존슨, 알 발

신앙의 유산, 2월호, 32쪽

들종다리새, 6월호, 42쪽

ㅊ

차일드, 셀던 에프

보증 수표, 7월호, 29쪽

챔벌레인, 마크 디

영성을 위태롭게 하는 흠잡기, 5월호, 16쪽

ㅋ

카, 윌리엄 롤프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1월호, 80쪽

카말고, 빅터

몰몬경을 함께 나눔, 4월호, 31쪽

카물레트, 쿠테카

자이레에서 주님의 집으로, 8월호, 8쪽

켈리, 페트리아

제때 한 바느질, 8월호, 34쪽

캐런, 애쉬튼

나는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하겠다, 11월호, 어린이란 8쪽

나의 복음 표준, 2월호, 어린이란 14쪽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지요, 3월호, 어린이란 8쪽

연구와 신앙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함, 6월호, 어린이란 8쪽

영웅과 여장부, 8월호, 어린이란 8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9월호, 어린이란 8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예언자들이 간증함, 12월호, 어린이란 8쪽

요셉 스미스—하나님의 용감한 종, 10월호, 어린이란 4쪽

침례—나의 첫 번째 성약, 5월호, 어린이란 4쪽

회개—잘못을 옳은 것으로 바꿈, 4월호, 어린이란 10쪽

코너스, 폴

소음 바다 속에서, 3월호, 26쪽

코무, 스리 데비

고향으로 선교 사업을 떠남, 5월호, 8쪽

콕스, 데일 에스

귀를 귀울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함, 8월호, 20쪽

쿡, 매리 닐슨

몽골에서 일고 있는 놀라운 변화, 2월호, 10쪽

쿡, 커틴 엘

기뻐하라!, 1월호, 28쪽

크리스턴슨, 조 제이

구세주는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1월호, 39쪽

클라이드, 에일린 에이치

신앙으로 확인됨, 1월호 87쪽

클라크, 앤드류

카보베르데에 부는 복음 변화의 바람, 4월호, 34쪽

클레이튼, 콜리스

옳은 일을 선택하라, 3월호, 어린이란 10쪽

체코 공화국, 프라하에 사는 룩 크루틸, 9월호, 어린이란 14쪽

ㅌ

터니에이, 수잔

과거의 상한 감정을 돌아보며, 6월호, 15쪽

테일러, 제럴드 엘

감사, 7월호, 33쪽

토드, 레베카

크리스마스 별, 12월호, 어린이란 6쪽

개척자 여행, 10월호, 어린이란 8쪽, 어린이란 16쪽

토마스 재닛

예언자이신 나의 할아버지, 10월호, 8쪽

짐을 나눠 가짐, 5월호, 10쪽

토마트, 피터

신권의 권세는 실제합니다, 6월호, 44쪽

톰사, 혼자

신앙을 지킨 50년, 6월호, 46쪽

튜아손, 마일즈 티

인도네시아 요기야 카르타에 사는 크리스천 네피와 에르나와티 수하르토, 6월호, 어린이란 6쪽

ㅍ

파우스트, 제임즈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10월호, 2쪽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월호, 52쪽

간증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 3월호, 2쪽

그들을 평원에서 데려오십시오, 11월호, 2쪽

상호부조회라는 중요한 열쇠, 1월호, 94쪽

신권의 힘, 7월호, 41쪽

우리 앞에 영원이 있습니다, 7월호, 18쪽

정직—도덕 나침판, 1월호, 41쪽

파이멘틀, 아이삭

나의 돌고래, 10월호, 46쪽

파커, 발레리

나는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3월호, 44쪽

파킨, 보니 디

모든 발자취에서 신앙을 발견함, 7월호, 84쪽

페커, 보이드 케이

개인적인 계시: 은사, 시험 그리고 약속, 6월호, 8쪽

십이사도, 1월호, 6쪽

깨끗하게 씻겼노라, 7월호, 9쪽

펑크, 앨런 브이

정직하게 거래 함, 11월호, 28쪽

페리, 엘 톰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1월호, 36쪽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7월호, 68쪽

포터, 엘 앨든

예언의 영, 1월호, 9쪽

프레즌, 더글러스

새로운 성탄절 전통, 12월호, 82쪽

프로페르지, 마우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8월호, 32쪽

피네가, 렉스 리

순종으로 얻는 평안, 4월호, 어린이란 7쪽

피네가, 패트리샤 피

어린이들의 영혼을 보살핌, 7월호, 13쪽

자주 기도함, 3월호, 어린이란 2쪽

새로운 교사들을 위한 자원, 2월호, 28쪽

피어스, 버지니아 에이치

인내로 버티며 계속 걸어가십시오, 7월호, 86쪽

평범한 교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훌륭한 장소, 1월호, 11쪽

피터슨, 재닛

신약의 백성들, 5월호, 어린이란 13쪽

ㅎ

하델, 줄리아

성전 방문 여행, 2월호, 8쪽

하틀리, 윌리엄 지

나부의 십대 청소년: 헨리 샌더슨, 8월호, 16쪽

하펜, 브루스 시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4월호, 38쪽

성약 결혼, 1월호, 26쪽

헌세이커, 테레사

압박감에서 해방됨, 11월호, 33쪽

험프리, 마리사 위태커

그것은 비밀이 아니에요—좋은 소식을 나눕시다!, 2월호, 44쪽

험프리스, 마조리

아이투타키의 십대들, 2월호, 46쪽

헤르난데스, 알렉산드라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 7월호, 90쪽

헤이트, 데이비드 비

부부 선교사: "훌륭한 자원", 10월호, 26쪽

예언자는 영감을 받음, 1월호, 14쪽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7월호, 37쪽

헤일즈, 로버트 디

영원한 가족, 1월호, 64쪽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7월호, 80쪽

홀드맨, 윌리

세상 꼭대기에서, 3월호, 10쪽

홀런드, 제프리 알

"그녀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7월호, 35쪽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1월호, 82쪽

화이트, 리랜드 디

캄보디아에서 복음이 부리를 내리기 시작함, 10월호, 40쪽

화이트, 조이스 비

캄보디아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함, 10월호, 40쪽

화이티어, 러레인

제시카와 몰몬경과 로 형제, 8월호, 어린이란 4쪽

힝클리, 고든 비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1월호, 85쪽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1월호, 48쪽

"참된 신앙", 7월호, 65쪽

"하나님이 그의 종 요셉을 통해 하신 일!", 2월호, 2쪽

감사의 계절, 12월호, 2쪽

개종자와 청남, 7월호, 47쪽

교회의 여성들, 1월호, 67쪽

독신 성인에게 주는 말씀, 11월호, 16쪽

사망을 이긴 승리, 4월호, 2쪽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3월호, 10쪽
6월호, 32쪽
9월호, 26쪽
10월호 14쪽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간증, 7월호, 83쪽

영감을 주는 말씀들, 8월호, 2쪽

영의 권능으로 들음, 1월호, 4쪽

우리 모두 충실하고 참되게, 7월호, 4쪽

그림: 댄 백스터, *메뚜기 떼들의 공격*

1848년 솔트레이크 계곡의 개척자들은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채소와 곡식을 삼켜 버리기 시작했을 때, 크게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었다. 남자와 여자와 늙은이와 어린이가 모두 몇 주 동안 이 메뚜기 떼들과 싸웠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갈매기들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에서 날아와 3주 동안 이 메뚜기 떼들을 먹어 치움으로써 그들의 농작물 가운데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누가복음 2:12) ❦ "하나님의 양, 곧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일서 11:21) ❦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7)

4 15979 92320 3